금수강산

8

주체108(2019)
루계 제360호 월간

 ISSN 1727—9062

그 리 움

2. 그 품 그리워 타는 눈빛들 별이 되였나
이밤 하늘가득히 별무리 흐르네
꿈에도 그이만 뵈옵는 내 마음 별이 되여
원수님 계시는 창가에 빛나고싶어라
별아 내 마음 알아서 실어다주려마

3. 우리 행복을 위해 쉼없는 아버지의 길
지금 어데 계실가 그리움 불타네
순간도 그 품을 떠나서 못사는 이내 마음
원수님 오시는 그 길에 기쁨만 펼치리
그이 안녕을 바라며 이 마음 달리네

씨 름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 씨름결승경기에 참가한 평양시의 주철룡선수와 평안북도의 문창성선수들은 배지기를 비롯한 다양한 씨름기술수법들을 활용하며 재치있는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이고있다.

민족체육종목인 씨름은 오늘 조건과 시간,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어디서나 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대중화되였으며 국가적인 체육경기대회들에서도 널리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김금진

차 례

45

52

체육열기로 들끓는 조국

오늘 조국땅 그 어디서나 대중체육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도처에 일떠선 체육관, 체육공원들과 기관, 기업소에 특색있게 꾸려놓은 체육시설들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체육경기들이 진행되여 온 한해가 체육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있다.

해마다 진행하는 체육경기들도 정말 많다.

정일봉상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백두산상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 전국농업근로자민족체육경기대회,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 수영경기, 대황소상전국민족씨름경기,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

휴식일이면 곳곳에 꾸려진 체육시설들에서 직장별, 인민반별을 비롯하여 남녀로소 누구나 떨쳐나 승벽내기로 탁구와 롱구, 배구, 정구, 바드민톤과 같은 체육경기들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문을 연 평양시체육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체육경기와 운동을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이곳에서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사이의 축구경기가 진행되였는데 볼만 하였다.

완강한 방어와 불의적인 역습으로 상대팀을 위협하는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선수들과 중간지대를 장악하고 측면돌파로 득점기회를 노리는 평양화장품공장 선수들, 거기에 응원자들의 열기띤 응원…

경기에 참가하였던 평양화장품공장의 한 일군은 《우리 공장선수들의 축구실력이 많이 발전한것이 알린다.》라고 하면서 대중체육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자기 공장선수들의 체육실력이 높아져 축구면 축구, 롱구면 롱구, 배구면 배구 어느 종목에서나 다른 공장들에 못지않다고 자랑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정이면 가정, 인민반이면 인민반에서도 친척별, 세대별, 층별로 롱구, 배구, 탁구경기를 이채롭게 진행하고있다.

날을 따라 활기를 띠고 진행되는 대중체육열기와 함께 그에 대한 사회적관심도 높아져 많은 사람들이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련마하느라 땀흘려 훈련하고있다.

이제는 직장에서나 가정들에서 대중체육활동을 떠난 사람들의 로동과 생활에 대하여 말할수 없게 되였다.

온 나라에 체육열기가 고조될수록 일터마다의 생산실적도 부쩍 장성되고있다.

최근 년간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가방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326전선공장, 선교편직공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을 보면 례외없이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한 단위들이다.

조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대중체육활동에 참가하여 체력을 단련하고있다.

근로자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게 하고 그들이 희열과 랑만에 넘쳐 일터마다에서 혁신을 창조하게 하는 대중체육활동은 절세위인들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직후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때로부터 불과 한달도 안되여 북조선체육동맹(당시)을 무어주시고 나라의 체육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주체35(1946)년 10월 6일에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체육인대회를 마련해주시고 《체육을 대중화하기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에서 해방된 민주조선의 체육은 몇몇 개인선수들을 내세우기 위한 체육에 그쳐서는 안될것이며 또한 얼마 안되는 사람들의 놀음거리로 되여서도 안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며 우리의 체육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건국사업의 중요한 고리로서 발전되여야 할것이라고, 다시말하여 민주조선을 건설할 씩씩한 건국투사들을 키우기 위하여 인민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단련시키는 전인민적체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로동자, 농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대중체육경기들도 환한 미소속에 보아주시고 찾으시는 학교들마다에서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그이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체육을 중시하시며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

《대중체육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고 나라일이 바쁘신 속에서도 예술인체육대회, 대학생축구경기 등을 관람하시면서 대중체육발전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그이께서는 대중체육문제를 화제에 올리시며 지난 기간에는 업간체조와 인민체력검정을 정상적으로 하고 시, 군, 구역별로 체육경기도 자주 조직하며 집단달리기도 많이 하여 누구나 다 운동을 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하여야 건강하여 오래 살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체육의 견인력으로 인민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더욱 튼튼히 키우며 조국의 영예를 누리에 더욱 빛내이시려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헌신의 력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더욱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체육사업에서 대중체육사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근로자들속에서 여러가지 체육경기를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주체102(2013)년 9월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나라의 체육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도별대항경기를 조직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개건된 평양체육관을 찾으시여서는 체육경기를 조직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평양체육관에서 먼저 대회 같은것을 하는것보다 체육관의 성격에 맞게 체육경기를 하는것이 낫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평양체육관에서 도별대항경기를 조직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미전에 벌써 사회적으로 체육중시기풍을 세우고 체육을 대중화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킬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도별대항경기도 널리 조직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때 일군들은 그이의 말씀을 전달받고서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를 잘 알지 못하여 경기대회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있었다.

그이께서는 경기조직과 진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서 도별대항경기시상도 크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번에 진행하는 도별대항경기에서 순위를 1등부터 3등까지만 매기지 말고 마지막등수까지 다 매기도록 하여야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 바줄당기기경기와 배구경기의 한 장면

한다고 하시였다.

이외에도 해마다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를 비롯한 부문별체육경기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그해 10월 평양체육관에 나오시여 전국도대항체육경기(당시) 대중체육부문 결승경기를 보아주시고는 도들의 체육기술수준이 생각하였던것보다 상당히 높다고 만족하신 어조로 말씀하시며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자고 하여도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야 한다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것은 사회의 단합을 이룩하고 건전한 분위기를 세우는 면에서도 좋다고 하시면서 다음해부터 도대항체육경기를 년례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경기명칭과 상징마크도안, 경기종목선정을 비롯하여 전국도대항체육경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들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온 나라에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되였으며 그로 하여 사회전반에 활력과 생기, 기백과 랑만이 차넘치게 되였다.

정녕 절세위인들을 모시여 대중체육열기는 더욱 높아질것이며 그로 하여 온 나라는 흥해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임향심

제11차 전국농업근로자민족체육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

제24차 백두산상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 롱구경기의 한 장면

◇일 화◇

비약의 나래

몸소 경기도 보아주시며

주체102(2013)년 7월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4.25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들의 활쏘기경기를 보아주시였다.

활쏘기경기는 녀자단체경기, 혼성단체경기, 녀자개인경기로 진행되였다.

그이께서는 화살들이 목표판의 중심에 정확히 들어가 맞을 때마다 잘한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경기에서는 4.25국방체육단의 활쏘기선수들이 이겼다.

그이께서는 4.25국방체육단 선수들이 활쏘기를 잘한다고 치하하시고 활쏘기경기종목에서 세계패권을 잡자면 다른 체육종목과 마찬가지로 선수들의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선수들이 조국의 영예를 걸고 경기에 출전하도록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의 활쏘기선수들이 앞으로 올림픽경기를 비롯한 국제경기에 출전하여 얼마든지 우승할수 있으므로 이 종목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식의 활쏘기기술과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완성하며 훈련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활쏘기경기종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과 화살을 비롯한 기재를 최상급의 수준에서 마련해주기 위한 대책을 따라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4.25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들, 감독들, 지휘성원들이 활쏘기종목을 더욱 발전시켜 국제경기들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지켜주신 약속

주체103(2014)년 10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새로 개건된 5월1일경기장에서 평양시민들과 함께 국가종합팀과 월미도팀사이의 녀자축구경기를 관람하시였다.

경기가 끝난 후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선수, 감독들과 관람자들을 향해 오래동안 손저어 답례하신 그이께서는 관람석을 나서시면서 문득 한 일군을 찾으시여 전번에 김정선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그가 왔는가고, 왔으면 빨리 데려오라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순간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은 가슴이 뜨거워옴을 금할수 없었다.

그이의 부르심을 받은 김정선수의 격정과 환희는 더욱 컸다.

며칠전의 일이였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 감독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신 그이께서는 그 자리에 김정선수가 없는것을 아시고 그가 왜 보이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으로부터 김정선수는 국제경기를 위해 조국을 떠나있어 참가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탁구혼성복식경기에 참가한 김혁봉, 김정선수들이 경기를 마지막까지 잘했다고 하시고나서 김정선수가 이자리에 없는것을 못내 아쉬워하시며 앞으로 기회를 마련하여 그를 꼭 만나주겠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국제경기를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는 길에서 이 소식을 전달받은 그는 비록 그이를 만나뵙는 영광의 그 자리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시는 녀자탁구선수라는 크나큰 행복감으로 하여 가슴들먹이였다.

그이께서는 사랑의 그 약속을 지키시여 이렇게 김정선수를 자신의 가까이로 불러주시였던것이다.

가슴에 가득 차고넘치는 격정으로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는 김정선수를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그가 제52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혼성복식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데 이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탁구혼성복식경기에서 또다시 금메달을 쟁취하여 조국의 영예를 빛내였는데 정말 기특하다고, 앞으로 훈련을 더 잘하여 국제경기들에서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믿는다고 고무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그 선수를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정녕 체육인 한사람한사람을 귀중히 여기시는 그이의 사랑의 세계는 그대로 체육인들로 하여금 체육무대에서 주체조선의 위용을 온 세계에 떨쳐가도록 고무추동하는 비약의 나래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엄향심

높아가는 대중체육열풍

최근 조국에서 체육에 대한 전사회적관심이 높아지는 속에 대중체육활동이 더욱 고조를 이루고있다.

기자는 이에 대해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체육부장 홍성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최근 조국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대중체육활동소식에 대해 알고싶다.

부장: 조국에서는 체육이 대중화, 생활화되여 어디서나 체육열풍으로 끓어번지는 모습들을 찾아볼수 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와 취미에 맞게 체육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체육시설들이 가는 곳마다에 꾸려지고 롱구, 배구, 정구 등 체육바람이 도처에서 일고있다.

앙양된 체육열풍을 살려 우리는 전국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부문별, 단위별, 지역별로 다양한 대중체육경기들을 조직하고있다.

해마다 광명성절을 맞으며 백두산상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와 위원회, 성, 중앙기관종목별체육경기대회, 만경대상 도, 시, 군급일군체육경기대회, 전국로동자체육경기대회,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와 대황소상전국민족씨름경기 그리고 군과 군사이, 도와 도사이 래왕경기 등 20여차의 대회와 경기가 진행된다.

올해에만 보아도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된 제24차 백두산상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가 이채를 띠고 진행되였으며 5월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네형제공장이라고 정담아 불러주신 경제건설의 주요단위들인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금성뜨락또르공장, 대안친선유리공장들사이의 대항경기가 특색있게 진행되여 로동계급의 체육열풍을 더 한층 고조시켰다.

기자: 해마다 백두산상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에서 국가계획위원회,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이 계속 순위권에 들어서는데 그 비결을 어떻게 볼수 있는가.

부장: 국가계획위원회단위만 놓고봐도 부위원장, 국장급정무원들과 함께 모든 종업원들이 빠짐없이 경기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단위안에 대중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이전에는 선수본위주의로 경기를 운영하다나니 성적이 그리 시원치 않았다. 기관에서는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장소와 기재에 구애되지 않게 롱구장, 배구장, 탁구장을 비롯한 대중체육시설들을 더 많이 꾸려놓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였다. 결과 기관안에 매일같이 롱구, 정구바람이 불고있고 체육을 멀리하고 응원이나 하면서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 체육바람에 이제는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모범체육단위칭호도 수여받았다. 이 단위의 종업원들속에서는 체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니 몸이 거뜬하고 사업열의도 부쩍 올라간다는 좋은 반향들이 계속 제기되고있다.

이 기관의 성과와 경험은 다른 기관, 기업소들에 경기우승의 의욕을 높여주고있다.

이제는 대중체육기술이 전문체육기술에 못지 않게 발전하고있어 그 전망이 환히 내다보인다.

기자: 이야기를 들으니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방침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금 느끼게 된다.

부장: 그렇다.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는 공화국의 체육정책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다. 체육이 인민을 위한 사업, 인민들자신의 사업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매해 1, 2월을 겨울철체육월간으로, 7, 8월을 해양체육월간으로, 8, 9월을 인민체력검정월간으로 정하였을뿐아니라 10월의 두번째 주 일요일을 체육절로, 매월 두번째 주 일요일도 체육의 날로 정하고 대중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우승과 함께 젊음을 가져다주었다

리영대(왼쪽), 홍광욱(오른쪽)로인들

젊은 선수들과 나란히 우승의 시상대에 오른 로인들.

그들은 주체108(2019)년 5월 평양에서 진행된 장애자 및 애호가체육경기대회 정구경기 60살이상 애호가 남자복식에서 우승한 리영대, 홍광욱로인들이다.

우승컵과 메달을 수여받은 그들의 얼굴에는 우승을 한 기쁨과 환희가 한껏 어려있다.

로인들은 이번 정구경기에 처음 참가하였지만 높은 실력으로 결승경기에까지 진출하였다.

경기에서 맞다든 선수들은 여러번 우승한 전적이 있는 리효식, 최춘식로인들이여서 승부는 미리 정해져있는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홍광욱, 리영대로인들은 이에 당황하지 않고 신심을 가지고 침착하게 경기를 잘 운영해나갔다.

7회 4승으로 진행된 경기에서 로인들은 시작부터 강한 쳐넝기와 내려치기전술로 점수를 올렸으며 마지막회전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마음을 잘 맞추어나가 4 : 0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상대팀을 이겼다.

다른 체육종목에 비해 많은 체력소모를 요구하는 정구는 선수들의 보다 높은 육체적준비를 요구한다.

비록 60대 중엽의 로인들이지만 젊은이들 못지 않게 민첩하면서도 다양한 치기기술로 맞다든 선수들을 련속 물리치는 그들의 모습은 경기가 진행되는 전기간 관중의 놀라움과 감탄을 자아냈다.

경기에서 우승한 기쁨에 넘쳐 홍광욱로인은 《체육은 몸을 건강하게 할뿐아니라 삶의 희열과 랑만을 안겨준다. 이번 경기는 우리에게 우승과 함께 젊음을 가져다주었다.》라고 말하였다.

어디 가나 대중체육시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고 온 나라가 체육열풍으로 들끓는 속에 로인들 누구나가 젊음을 안고 사는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경

특히 8, 9월 인민체력검정월간에는 전국적으로 매 사람들이 국가앞에 1년동안에 갖춘 자기의 체력을 검증받는 하나의 계기점으로 되게 하고있다.

체력검정기준은 태권도, 달리기, 수영, 강행군 등 12가지 체육종목으로 하는데 나이와 성별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정하였다.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적인 체력검정에서 평양시가 제일 앞서나가고있다.

또한 모범체육단위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도 활발히 벌려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더우더 고조를 이루고있는 조국의 대중체육열풍은 단순히 체육을 즐기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오늘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애국열풍으로 이어지고있다.

우리는 앞으로 보다 다양한 대중체육경기들을 조직하여 온 나라에 기백과 활력이 차넘치게 하는데 이바지해나가겠다.

* * *

수 기

나의 첫걸음

나는 압록강체육단 력기감독이다.

처녀시절 세계적인 력기강자로 두각을 나타내던 내가 이렇게 감독이 되여 선수들을 키워가느라니 지난 일들이 자꾸만 떠오른다.

근 15년동안의 짧지 않은 력기선수년한이 있지만 그가운데서 청소년체육학교시절은 나의 기억속에 깊이 남아있다. 한것은 나에게 력기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력기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품게 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체육학교시절이기때문이다.

추억도 새롭다.

지금으로부터 30년전, 당시 나는 평안북도 동림군의 어느 한 소학교의 이름없는 소녀였다.

그때 나는 내 나이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한뽐이나 작았어도 달리기속도가 매우 빨라 운동회때마다 1등을 하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한사람이 학교운동장앞에서 나를 불러세우더니 불쑥 《력기라는 체육종목을 알고있니?》라고 묻는것이였다.

11살밖에 안되는 내가 력기가 어떤 종목인지 알리 만무하였다.

내가 말없이 서있기만 하는데 그는 우리 학교운동장과 이웃하고있는 동림군청소년체육학교를 가리키며 《난 저 학교의 력기지도교원 오순진이다. 창문너머로 력기훈련을 하는 언니들의 모습이 보이지? 내가 몇달째 이 운동장에서 너를 지켜보았는데 달리기를 참 잘하더구나. 너 력기를 하고싶은 생각이 없니?》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그제야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갈때마다 청소년체육학교에서 쾅- 쾅- 하고 울려나오던 둔중한 음향이 력기훈련을 하는 학생들이 내는 소리라는것과 이 선생님이 나를 오래전부터 살펴보았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체육이라면 다 좋아했던 나는 더 긴 생각을 하지 않고 《력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선선히 대답하였다.

이렇게 되여 나는 그 다음날부터 청소년체육학교 학생이 되였다.

내가 력기소조에 들어갔다는것을 안 우리 부모는 펄쩍 뛰면서 《력기만은 절대로 못한다.》고 딱 잘라맸다.

그러거나말거나 나는 체육학교가 참 좋았고 력기라는 새로운 종목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매일 땀으로 푹 젖은 옷을 보면 력기를 하지 말라는 어머니에게서 지청구를 들을가봐 훈련복을 내 손으로 남몰래 빨기도 하였다. 매일 구간들기와 같은 기초기술, 육체훈련을 반복하면서도 나의 마음속에는 력기에 대한 정이 더욱 깊어만 갔다.

오순진지도교원은 력기선수로서의 첫걸음마를 떼는 나를 어머니처럼 다정히 이끌며 기초기술을 하나하나 배워주었다.

그는 나를 위하여 기계공장에 가서 훈련기재들을 제작하여오기도 하였고 교수훈련내용을 부단히 연구하고 갱신해나가면서 나의 력기기술을 최단기간내에 부쩍 올려주느라 여러모로 애를 썼다.

그리고 력기경기는 누가 더 많은 무게를 드는가를 가르는 체육종목이라고 생각하고있던 나에게 구간을 들 때마다 조국의 명예와 존엄을 빛내이겠다는 각오를 안고 들어야 력기강자가 될수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이렇게 나는 청소년체육학교시절에 력기기초기술뿐만아니라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이려는 마음도 성장하였다.

나는 력기와 인연을 맺은 때로부터 한해가 지난 후 전국적인 청소년체육학교경기대회에서 종합 2등을 하였지만 자만하지 않고 훈련에 더 열중하였다.

동림군청소년체육학교의 이름없던 선수후비였던 나는 그후 압록강체육단에 선발되여 국가력기선수로 활약하게 되였다.

나는 여러차례의 세계녀자력기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련이어 우승하였으며 로력영웅으로, 인민체육인으로 성장하게 되였다.

진정 청소년체육학교시절은 감회도 새롭다. 돌이켜볼수록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한 선수후비육성체계가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것을 나는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

나는 력기를 배우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하군 한다.

《세계적인 체육강자로서의 첫걸음은 바로 청소년체육학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압록강체육단 감독 로력영웅 인민체육인
리성희

랑만과 희열에 넘쳐

여기는 평양시 보통강체육공원이다.

롱구장, 배구장, 정구장, 바드민톤장, 탄력망들에서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있는 애호가들의 열기띤 모습이 보인다.

시원하고 통쾌한 득점장면들을 련속 펼치는 배구경기에 끌린 길손들이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응원자가 되여버린다.

민첩성이 있고 속도감이 나는 롱구경기와 탁구경기 또한 볼만 하다.

정구장에서는 보통강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이 팀을 무어가지고 혼성복식경기를 진행하고있다.

전문선수들 못지 않는 정구기술은 결코 하루이틀사이에 련마된것이 아닌것 같다.

그런가 하면 평천구역에 위치한 안산체육공원에서도 대중체육으로 달아오른 근로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특히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것은 바드민톤장에서 운동을 하는 로인들이다.

평천구역 봉남동에 살고있는 이 로인들은 두해전 안산지구에 체육공원이 세워진 후 매일아침 청신한 공기를 마시며 1~2시간씩 바드민톤을 즐기였다고 한다.

김학성로인은 《이렇게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니 몸과 마음에 새로운 힘이 솟는다. 나날이 높아가는 체육열풍속에 가는 곳마다 대중체육기지들과 시설들이 솟아나 사람들은 누구나 희열과 랑만에 넘쳐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있다.》라고 말한다.

결코 무심히 들을수 없는 말이다.

되새겨보면 최근 몇해어간에 평양시를 비롯하여 나라의 곳곳마다에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대중체육기지들과 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났다.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인민야외빙상장과 같은 현대적인 체육문화기지들이 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섰으며 전국도처에 국제경기도 할수 있는 수많은 경기장들과 체육관, 어린이들을 위한 로라스케트장과 각종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 유원지들이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되고있다.

온 나라에 롱구바람, 배구바람, 정구바람, 로라스케트바람이 일고 청춘의 희열과 랑만으로 약동하는 분위기가 차넘치고있다.

어디 가나 대중체육으로 들끓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의 더 밝은 래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약동하는 모습이 있다.

글　본사기자 리　해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활기를 띠는 장애자체육

조국에서 날을 따라 높아가는 체육열풍은 장애자들의 체육활동에 활기를 더해주고있다.

장애자들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 사업은 장애자들의 얼굴에 밝은 빛을 더해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관심속에 일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조선장애자체육협회에서는 장애자들에게 체육활동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마련해주고 여러가지 체육경기들도 정기적으로 조직진행하고있다.

우리 조국에서 가장 대중화된 체육종목의 하나인 탁구는 장애자들속에서도 인기를 모으고있다.

주체99(2010)년부터 올해까지 연 14차에 걸쳐 진행된 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에 12살이상의 장애자들이 누구나 참가하여 평시에 련마한 자기들의 탁구기술을 발휘해나가고있다.

협회에서는 탁구뿐만아니라 수영, 륙상, 축구, 력기, 보링, 거리스키와 같은 종목들을 애호하는 장애자들을 적극 찾아내여 그들이 능력있는 감독들의 훈련지도를 받으며 기술을 높여나가도록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하여 탁구뿐아니라 수영과 정구종목의 장애자애호가들은 지난 5월에 있은 장애자 및 애호가체육경기대회를 통하여 장애를 딛고 사회에 이바지할수 있는 정신육체적능력을 키워나가고있는 자신들의 장한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조국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조직하고 승인하며 인정한 경기들에 참가할수 있는 장애자들을 선발하여 선수양성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출전하도록 적극 장려하고있다.

지난 기간 탁구, 축구, 수영, 활쏘기, 륙상 등 여러 종목의 선수들이 국제경기들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주체102(2013)년에 진행된 제3차 아시아청년장애자경기대회와 주체103(2014)년에 진행된 제2차 아시아장애자경기대회 탁구종목경기에서는 지체장애자 리철성과 송금정, 김정현, 리성철이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수영선수들인 심승혁, 림주성은 제14차 국제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맹인륙상선수 김철웅은 중국의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4차 중국공개륙상선수권대회 2016년 국제장애자올림픽위원회 그랜드상륙상경기대회 맹인륙상 5 000m종목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조국의 장애자들은 이밖에도 제12차 겨울철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 2017년 세계장애자활쏘기경기대회, 제15차 국제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장애자경기대회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우리 조국에서는 장애자들도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 마음만 먹으면 자기의 소중한 모든 꿈을 다 이루어갈수 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상 식

건강에 제일 좋은 시간

- 제일 좋은 목욕시간

아침에 일어나 목욕을 할 때 물의 온도가 적당하지 못하면 감기에 쉽게 걸릴수 있다. 점심에 목욕을 하면 몸이 거뜬해질수 있지만 인차 피로가 올수 있다.

제일 좋은 때는 저녁이다.

잠자기 전에 더운물로 목욕을 하면 긴장되였던 온몸의 근육과 관절들이 풀리고 피순환이 빨라지며 잠도 잘 잘수 있다.

- 제일 좋은 몸단련시간

아침은 몸단련에 가장 좋은 때로 알려져있지만 해질무렵에 몸을 단련하는것이 더 좋다. 해질무렵에는 미각,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이 최고로 예민해지고 전신조절능력이 제일 강해지며 특히 심장박동과 혈압이 비교적 낮아져 몸단련에 적합하다.

- 방안공기갈이에 제일 좋은 시간

매일 오전 9~11시, 오후 2~4시 사이에 공기갈이를 하는것이 제일 좋다. 이때에는 기온이 높고 역류현상도 없으며 대기밑층의 유해기체는 점차 흩어진다.

- 과일을 먹기에 제일 좋은 시간

식사하기 1시간전에 과일을 먹는것이 좋다. 과일은 생것이므로 그것을 먹은 후 더운 음식을 먹으면 체내에서 백혈구증가를 비롯한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고 인체면역계통을 보호해주며 질병, 암예방능력을 높여줄수 있다.

* * *

훈련의 과학화에 힘을 넣고

최근년간 평양시 중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지난해에만도 제55차 전국청소년체육학교체육경기대회 남자바드민톤, 녀자력기, 예술체조 등 여러 종목에서 우승하였다.

그 비결에 대해 계찬국교장은 체육선수후비육성사업을 개선하자면 선수후비들을 옳게 선발하는것과 함께 과학적리치에 맞게 기초기술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지난 기간 학교에서는 지도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첫자리에 놓고 그를 위한 주별, 월별, 분기별계획을 면밀히 세운데 기초하여 전공실기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 과학강연과 교수합평회, 경험토론회 등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지도교원들이 종목별로 학생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기초기술, 기초체력을 발달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기능성육체훈련방법을 비롯한 선진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연구, 도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내외의 체육정보자료들을 수집, 분석하며 그것을 학생들의 훈련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나날에 지도교원들의 자질과 교수훈련의 과학화수준은 차츰 높아지게 되였다.

축구지도교원 허윤철, 롱구지도교원 김명희, 예술체조지도교원 김경애를 비롯한 많은 지도교원들이 청소년축구선수들의 방어훈련지원체계프로그람, 새로운 롱구경기 및 훈련지원체계프로그람, 다매체편집물 《맨손 기초기술훈련방법에 대하여》를 비롯한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아 전국적인 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축구지도교원 류정원, 바드민톤지도교원 림명희 등 지도교원들 누구나가 문지기반응훈련용기재며 바드민톤집중공발사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창안품들을 만들어 교수훈련에 도입하였다.

자질을 높이기 위한 지도교원들의 훈련토의

결과 최선명학생이 주체107(2018)년 7월 로씨야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청소년경기대회 바드민톤종목에서 우승한것을 비롯하여 이 학교 학생들의 성적은 국내외경기들마다에서 눈에 띄게 높아지게 되였다.

훈련의 과학화, 이것이 바로 이 학교가 거둔 성과의 비결이 아니겠는가.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수난당한 대지

(전호에서 계속)

인민을 위해 싸우는 투사들이 자기를 낳아준 인민에게서 버림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단 하루라도 인민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 혁명가의 생명은 산 목숨이라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대중이 계렬을 가리지 않고 혁명가일반을 랭대할 때 우리가 그토록 가슴아프게 생각한 것은 폭동을 계기로 하여 공산주의자들의 권위가 훼손된데 대한 안타까움, 군중이 자기 지도자들을 믿지 않고 조직으로부터 떨어져나가는데 대한 안타까움때문이였으며 조중인민들사이에 불신과 오해의 벽이 생긴데 대한 안타까움때문이였다.

이런것들이 당시로서는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하지만 우리는 고민하고 괴로와하고 모대기기만 한것은 아니였다. 혁명가의 투쟁행로에 난관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혁명이라고 말할수 없을것이다. 혁명가는 이런 때일수록 의지를 가다듬고 신심에 넘쳐 완강하게 시련을 타개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1931년에도 간도일대에서 5.30폭동의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작업을 근기있게 해나갔다. 카륜회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첫째가는 장애가 바로 이 폭동의 후유증이였다. 이 장애를 시급히 제거하고 혁명대오를 재정비하지 않는다면 위기에 처한 혁명을 건질수도 없었고 심화발전시킬수도 없었다.

오가자회의를 끝낸 후 동만으로 나가면서 나는 내자신과 동지들앞에 두가지 과제를 내세웠다.

하나의 과제는 5.30폭동의 후과를 총화하는것이였다. 폭동을 설계하고 지휘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폭동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과학적으로 정확히 분석총화할 필요를 느끼였다.

폭동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지만 동만에는 아직도 광신적인 테로주의자들과 리립삼로선의 신봉자들이 남아 무모한 폭력투쟁에로 대중을 부추기고 있었다.

일국에서 사회주의혁명승리의 가능성에 대한 레닌의 명제를 교조적으로 적용한 《한개 성 또는 수개 성에서의 우선적승리》라는 리립삼의 로선은 대중을 폭동에로 떠미는 강력한 자극제의 역할을 하였다.

중국당의 실권을 장악하고있던 사람이 내놓은 로선이고 또 그것이 조직선을 통해 하달된것만큼 사람들은 리립삼이 당직에서 물러나고 그의 주장이 좌경모험주의라고 락인될 때까지 오래동안 그 로선을 추종하였다. 그들은 실패와 좌절의 쓴맛을 보면서도 리립삼이 펼쳐보인 그 달콤한 몽상에서 좀처럼 깨여나지 못하고있었다.

5.30폭동을 총화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몽상에서 깨여날수 있었다.

우리는 5.30폭동총화를 통하여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출세주의와 공명주의, 소부르죠아적영웅주의에 경종을 울리기로 결심하였다.

폭동의 총화는 또한 만주지방의 혁명가들에게 과학적인 전략전술과 대중령도방법을 체득할수 있게 하는 하나의 력사적인 전환점으로 될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다른 하나의 과제는 광범한 군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울수 있는 옳바른 조직로선을 제기하고 그 로선으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무장시키는것이였다.

간도지방의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파괴된 조직들을 복구정비하고 그것을 확대강화해나가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똑똑한 조직로선이 없었다.

동만지방에서 활동하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대중을 조직화하는 사업에서도 혹심한 좌경적오유를 범하고있었다. 그들은 《계급혁명론》을 부르짖으면서 빈고농들과 로동자들만을 조직에 받아들이였다. 그밖의 계층에 대해서는 다 혁명과는 인연이 없는 대상으로 보았다. 그래서 조직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공산주의란 바로 저런 물건짝이구나, 쌀에 뉘만큼한 홀잠뱅이들만 모여서 쑥덕거리고 나머지는 다 따돌리는것이 공산주의로구나 하는 말을 돌리며 분개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폐쇄적경향을 타파하고 각계각층의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자면 고전의 명제나 다른 나라의 경험에만 매달리려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적경향을 극복하고 그 모든 애국력량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포섭하고 수용할수 있는 옳바른 조직로선을 찾아내고 그것을 한시바삐 관철해야 하였다.

나는 이러한 과제를 간도로정의 첫 단계 사업목표로 정하고 동만으로 가는 걸음을 다그쳤다. 그런데 천만뜻밖에도 고유수에서 대중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고 류봉화, 최득영과 함께 장춘쪽으로 나가다가 밀정의 고발로 반동군벌당국에 체포되였다. 그 당시 군벌당국은 우리의 활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었다. 그들도 일본경찰에 짝지지 않는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무장투쟁준비를 하기 위하여 동만으로 나간다는것까지 다 알고있었다.

고유수가 중부 만주지방에서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주요한 활동기지라는것을 간파한 군벌당국은 이통현 현공서를 발동시켜 이 마을에 독찰원을 파견하고 우리의 일거일동을 검질기게 감시하였다.

고유수에는 현공서에서 파견된 독찰원과 련계를 가지고 우리의 활동을 은밀히 내탐하던 리출류라는 중국인지주가 있었다.

우리가 고유수를 떠나 장춘방향으로 간다는것을 독찰원들에게 밀고한자가 바로 이 리가였다. 우리는 다난툰이라는 곳에서 독찰원의 련락을 받고 긴급출동한 보위단원들에게 체포되여 현공서감방에서 며칠동안 심문을 받다가 장춘으로 호송되여 거기서 20일가량 감옥생활을 하였다. 내 생애에서의 세번째 감옥살이였다.

그때 장춘에는 길림육문중학교의 리광한교장선생과 하선생이 와있었다. 그들은 내가 체포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군벌당국에 찾아가 《김성주는 길림감옥에서도 무죄로 석방된 사람인데 왜 또 잡아가두는가? 김성주는 우리가 보증한다.》고 하면서 강력한 항의를 들이댔다. 그들의 도움으로 나는 다행히 감옥에서 풀려나올수 있었다.

두 은사가 다 공산주의를 리해하는 련공인사들이였기때문에 어려운 대목에서 주저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주었다고 생각한다.

지난날과 다름없이 나를 진심으로 동정하고 보호해주며 우리의 위업을 변함없이 리해해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평생을 두고 지울수 없는 크나큰 감명을 받았다.

동만에 나와서 우리가 벌려놓은 첫 사업은 조선혁명군 대원들과 혁명조직핵심성원들을 위한 돈화강습이였다.

이 강습에서는 무장투쟁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과업과 그 실천방도, 기층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분산된 혁명군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문제들을 취급하였다. 이해 12월에 열린 겨울명월구회의의 예비작업이라고도 할수 있는 강습이였다.

이 강습이 있은 다음에는 안도, 연길, 화룡, 왕청, 종성, 온성일대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였다.

간도와 두만강연안 륙읍일대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우리는 1931년 5월 중순 옹성라자에 있는 리청산의 집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열었다. 력사에서는 이 회의를 《봄명월구회의》라고도 한다.

옹성라자란 옹기소리나는 바위라는 뜻이다. 일본이 만주를 강점하기 전까지는 명월구를 옹성라자라고도 불렀다. 일본사람들이 만주를 먹은 다음 철도역을 내오면서 옹성라자를 명월구라고 표기하였는데 그것이 그대로 고착되여 후세사람들도 옹성라자를 명월구라고 부르게 되였다.

지금은 명월구가 안도현 소재지로 되였지만 우리가 회의를 하던 당시까지만 해도 그 고장은 연길현에 속해있었다.

《봄명월구회의》에는 당, 공청간부들과 조선혁명군 성원들, 지하공작원들이 수십명 참가하였다. 간도지방의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중에서 백창헌을 비롯하여 한다하는 혁명가들은 이 회의에 거의다 참가했다고 생각된다.

《좌경적모험주의로선을 배격하고 혁명적조직로선을 관철하자》는 이 회의에서 내가 한 연설을 정리한것이다. 이 연설에는 내가 동만으로 나오면서 세워놓았던 두가지 과제가 다 포함되여있었다.

이미 계획했던대로 우리는 이 회의에서 5.30폭동의 본질을 심각하게 분석총화하였으며 기본군중을 튼튼히 결속하고 그 주위에 각계각층 반일력량을 굳게 단결시켜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단합시킬데 대한 혁명적조직로선을 제기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수기

개선문앞에서

나는 해마다 8월 15일과 10월 14일이면 의례히 가족과 함께 개선문을 찾군 한다.

웅장화려한 개선문을 바라볼때면 74년전 그날 하늘땅을 진감했던 《**김일성**장군 만세!》, 《조국해방 만세!》의 환호성이 나의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다.

손에손에 꽃다발과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 만세!》라고 씌여진 구호들을 들고 민족의 어버이, 해방의 은인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던 각계각층 군중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환영군중대회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었다.

비록 그들속에 함께 서있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때의 감격을 너무나 잘 알고있다. 한것은 나의 어머니가 그때 민족재생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꽃다발을 드렸기때문이다.

당시 북조선공산당 평안남도위원회 부녀부에서 일한 나의 어머니(최탄실)는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에 모시고 일하면서도 그분을 미처 알아뵙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주체34(1945)년 10월 14일 위대한 수령님께 꽃다발을 드리는 영광의 자리에서 그토록 정열에 넘치신 모습으로 새 조국건설사업을 령도하시던 분이 바로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어머니는 너무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였다고 한다.

중세기적인 폭압과 학정밑에 시달리며 삶의 권리를 송두리채 빼앗기고 신음하던 조선민족을 도탄에서 구원해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피어린 항일대전사가 눈물겹게 안겨와서였다.

일찍부터 나라잃은 민족의 아픔과 불행을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시면서 기어이 나라를 다시 찾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시며 어리신 나이에 만경대사립문을 떠나 혁명의 길에 나서신 어버이수령님.

일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자면 무장투쟁을 벌려야 한다는 독립의 방략을 천명하시고 항일무장대오를 조직하신 그이께서는 일제와의 대전을 선포하시고 백두밀림과 만주광야에서 피어린 항일대전을 조직전개하시였다.

그 나날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간고한 투쟁이였다.

날과 날을 이어 계속되는 적들과의 피어린 격전,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는 혹한, 끊임없이 겹쳐드는 굶주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갖 고초를 다 이겨내시고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나가시며 신출귀몰한 유격전법으로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며 끝내 조국을 해방하시였다.

정녕 그이께서 조국을 해방하심으로써 우리 민족이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구원되고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새 삶과 자주적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밝은 길을 열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조국해방은 모든 조선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새 생활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우리 가정도 례외가 아니였다.

하기에 어머니는 해방을 맞이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운 그날의 감격이 너무도 커서 그다음해 태여난 나의 이름을 해방이라고 지었으며 우리들에게 늘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던 이야기를 자주 해주면서 그이께서 안아오신 조국해방의 력사적사변을 떠나서 가정의 그 어떤 행복도 미래도 있을수 없다고, 대를 이어가며 나라에 보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오늘까지 변함없이 조국에 보탬이 되는 크고작은 일들을 해오고있다.

세월이 흘러 대식솔이 된 지금에도 이것은 우리 집의 가풍처럼 되고있다.

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여 찾아주신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고 요람인 조국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비파1동
문해방

세기를 이어 굳건해지는 조로친선

전통적인 조로친선의 뉴대가 세기를 이어 굳건해지고있다.

지난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뿌찐대통령은 력사적인 첫 상봉을 통하여 훌륭한 친분관계를 쌓으시고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친선의 뉴대를 일층 강화하시였다.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조선과 로씨야사이의 리해와 신뢰, 친선과 협조를 더욱 증진시키고 새 세기를 지향한 조로친선관계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친선방문은 세기와 세대를 넘어 이어져온 오래고도 긴밀한 조로친선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더욱더 승화발전시키기 위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사변이다.

돌이켜보면 조로친선은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38(1949)년 쏘련(당시)에 대한 첫 공식방문을 진행하시여 두 나라사이의 첫 협정으로 되는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시였다.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폭넓고 심도있게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그후 두 나라는 서로에게 유익한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끊임없이 진행하여왔다.

조로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70년의 력사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서로의 지향과 념원,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큰 기여로 된다는것을 확증한 나날이였다.

조로친선협조관계는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 7월 로씨야국가수반으로서 처음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뿌찐대통령과 상봉하시고 조로공동선언을 채택하시였다. 조로공동선언은 21세기 조로친선협조관계의 발전을 적극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문건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0(2001)년 8월 로씨야를 공식방문하시면서 뿌찐대통령과 또다시 상봉하시고 조로모스크바선언에 서명하시였다. 이로써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정, 두 나라의 번영과 평등한 호혜적협조를 이룩하는데서 또 하나의 위력한 추동력이 마련되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주체91(2002)년과 주체100(2011)년에도 로씨야를 방문하시여 조로친선의 뉴대를 굳건히 하시였다.

이 나날에 여러급에서의 래왕과 접촉이 활발해지고 쌍무관계문제와 국제문제들에 대한 견해가 폭넓게 교환됨으로써 조로친선의 화원은 더욱 풍만해졌다.

현시기 조로친선협조관계는 쌍방의 리익에 부합되고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속 발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5월과 9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로씨야련방 외무상과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을 접견하시고 선대지도자들이 마련해주신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친선관계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지속적으로, 건설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며 지역과 세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나가는데서 협력하고 보조를 함께 해나갈데 대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시였다.

두 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속에 지난해에 조로외교관계설정 70돐을 의의있게 기념한데 이어 올해에도 두 나라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70돐을 계기로 쌍무관계발전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있다.

두 나라사이에는 문화협조, 관광협조를 위한 계획서와 량해문이 조인되고 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회의도 진행되였다.

이것은 조로친선의 력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해나가려는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지향과 노력의 결과이다.

로씨야는 우리 나라와 국경을 접한 이웃이며 조로관계는 오랜 력사를 가진 친선관계이다. 두 나라는 외부의 간섭과 압력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견해와 립장으로부터 두 나라 인민이 함께 걸어온 관계발전의 력사와 그 과정에 마련된 친선과 협조의 훌륭한 전통과 고귀한 업적들은 세기와 세대를 이어가며 더욱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반 향

위대한 사상리론가, 다재다박하신 천재

오늘 세계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완성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고계시는데 대해 깊이 감복하고있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는 주체101(2012)년 10월 2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사상과 리론을 충직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012년에만도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였는데 참으로 놀랍다.

그이의 저서들만 보아도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심을 알수 있다.

2017년 《**김정은**장군과 오늘의 조선》이라는 주제로 열린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네트토론회에서 기조보고자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의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으시여 주체의 철학사상을 인류사상사의 최고높이에 올려놓으시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비상히 풍부하고 독창적인 전략전술이 집대성되여있는 **김정은**각하의 사상리론들은 사회주의위업완성의 길을 뚜렷이 명시한 불멸의 대강이라고 격찬하였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2012년 4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시며 하신 첫 공개연설에서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이라고 천명하시였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그이의 탁월한 정치리념이 담겨져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 발표하신 수많은 저서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내용의 심오성과 철학성에 감탄을 금할수 없다.》

이것은 쟝까를로 엘리아 발로리 이딸리아국제그룹 리사장이 쓴 글 《태양은 영원히 빛난다》의 한 대목이다.

그는 글에서 **김정은**각하의 저서인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는 자기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이든지 스스로 애국의 길에 떨쳐나서게 하는 기치와도 같은 문헌이다, 그분께서 발표하신 저서들은 그 어느 사상가나 리론가도 내놓을수 없는 고전적문헌들이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정치계는 각하의 저서들을 정치활동의 교과서로 깊이 연구하며 지침으로 삼고있다고 밝혔다.

라오스신문 《빠싸손》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모든 분야에 도통하시고 전문가들도 견줄수 없는 다방면적인 식견을 지니고계시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비범한 예지와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을 지닌분이시다.

그이께서는 정치, 경제, 문화, 첨단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계신다.

특히 령장으로서의 자질과 천품을 지니시고 각 군종, 병종, 전문분야는 물론 최신군사과학기술과 각종 군사장비들에도 완전히 정통하고계신다.

2017년 《백두산과 오늘의 조선》이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국제토론회에서 울려나온 《**김정은**각하는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 **김정일**각하와 꼭 같으신분, 다재다박하신 천재이시다.》라는 격정의 웨침은 인류를 무한히 격동시키였다.

벌가리아공산주의동맹 명예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축하하여 발표한 담화에서 천재적인 예지와 식견을 지니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해 적극 지지찬동하면서 조선의 벗들, 당신들이 정말 부럽다, 전세계 진보적인류는 조선을 희망의 등대로 간주하고있다고 진정을 터놓았다.

*　　*　　*

자주와 강국

오늘 강국의 꿈은 어느 나라에게나 다 있다. 하지만 령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 강국이 되는것이 아니다. 발전된 경제군사력을 가진 나라라고 하여도 남의 비위를 맞추고 제 할말도 못하면 강국이라고 할수 없다.

하다면 강국건설의 근본초석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으로부터 26년전의 2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어느 한 나라의 대표단과 담화를 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자기 운명을 오직 자기자신만이 개척할수 있다는것은 바로 자신께서 혁명투쟁을 시작할 때부터 삼고있는 좌우명이라고 하시면서 자주로 개척하고 빛내여오신 조선혁명의 전 로정에 대하여 실감있게 들려주시였다.

돌이켜보면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그것을 혁명의 원리로, 혁명방식으로 정립하고 구현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자주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공화국은 첫걸음부터 자기 발전의 길을 독자적으로 힘차게 걸어왔다.

사대와 교조, 외세의 강권과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며 자기의 탄생을 알린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도전속에서 전쟁과 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에서 련이어 승리하였고 자주로 존엄높고 위력한 국가로 우뚝 일떠섰다. 자주의 로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였기에 공화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질 때에도, 익측도 후방도 없이 제국주의련합세력과 치렬한 전면대결전을 벌릴 때에도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위용떨치였다.

놓고보면 정치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모든 일을 자기가 마음먹은대로, 자기의 배짱대로 내민다면 작고 뒤떨어진 나라도 세계적인 강국으로 솟구쳐오를수 있다.

자주는 오늘의 시대에 더욱 더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오늘날의 투쟁은 지난 세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속에서 벌어지고있다. 세계사회주의진영이 존재하던 시기에는 자주문제가 주로 사대와 교조, 대국주의와의 투쟁속에서 부강조국건설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로선상문제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자주는 적대세력들의 2중3중의 압박속에서 죽느냐사느냐 하는 운명적인 문제, 강국건설위업을 중도반단하는가 끝까지 완성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존엄높은 강대국의 주인으로 내세우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인민들을 주체사상, 민족자주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나라의 정치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지시려는것, 경제와 국방, 문화의 모든 분야를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며 남의 식, 남의 풍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으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그이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것은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견본모방형이 아니라 개발창조형으로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그리고 가장 경계하시는것은 민족의 자존심이 침식되는줄도 모르고 남의것을 덮어놓고 우상화하며 외부의 원조가 없이는 일떠설수 없다고 하는 사대주의, 패배주의적관점이다.

최근년간 나라의 전반적국력이 급상승하고 전쟁접경에로 치닫던 초긴장상태들이 평정된것, 인민경제의 자립성, 주체성이 더욱 강화되여 주체철이 쏟아지고 우리 식의 기계제품들이 생산되고있을뿐아니라 경공업, 인민생활기지들에서 명제품, 명상품들이 쏟아져나오고있는것, 현대적으로 꾸려진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는 이 모든것은 그이의 자주정치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실천속에서 검증된 진리는 천만금의 무게를 가지는 법이다.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펼쳐지는 자랑찬 현실은 인민의 가슴마다에 자주만이 살길이고 번영의 지름길이라는 신념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자주는 강국건설의 근본초석이다.

본사기자 홍정혁

황홀경을 펼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조국의 풍치수려한 릉라도의 5월1일경기장에서 지난 6월초부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가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새로 창작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자주적존엄과 긍지를 떨쳐온 조선인민의 빛나는 승리의 력사,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사회주의조국의 참모습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공연에는 관록있는 배우들과 수많은 근로청년, 학생, 어린이들이 참가하고있다.

아름답고 우아한 률동과 기백있는 체조, 흥취나는 민족적정서와 풍부한 예술적형상, 천변만화하는 대규모의 배경대화폭으로 매 장, 경마다 황홀경을 펼쳐보이는 공연은 10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　　*　　*

다량생산으로부터 질제고로 전환

제화직장에서

새형의 도안을 놓고

바닥압착공정

지난 3월말 평양역전백화점에서 진행된 《봄철전국신발전시회-2019》에서는 흥남구두공장의 신발들도 수많은 구매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신발들은 형태가 다양하고 가벼워 신기에 아주 편리하다는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이러한 호평을 받게 된데는 몇해전부터 제품의 다량생산을 기본으로 하던 경영방식을 질제고에로 전환한데 그 비결이 있다.

심경희지배인의 말에 의하면 최근년간 공장에서는 재질에 따르는 신발도안과 신발설계방법을 종전보다 더 과학화하여 새제품개발능력을 몇배로 높였다고 한다.

공장일군들과 생산자들은 물론 판매자들도 구매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것을 사업의 선차적인 요구로 제기하였다.

이렇게 되니 모든 생산자들이 신발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기 위한 창의고안과 기술혁신안을 서로서로 내놓기 위해 애쓰며 지혜를 합쳐나갔다.

하여 짧은 기간에 공장에서는 신발창을 가볍고 든든하게 만들뿐아니라 신발창설계를 현대적추세와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계속 부단히 갱신하게 되였고 그 주기도 짧아졌다.

도안창작에는 도안가들뿐아니라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앞을 다투어 참가하였다. 매월마다 진행된 공장적인 도안창작품평회에서 평가된 우수한 도안들이 생산에 도입되였다.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지난 시기에 남녀구두와 학생용구두를 다량생산하는데만 만족해있던 낡은 관념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구두의 형태와 질을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는것과 함께 년령별, 직업별, 계절별특성에 맞는 새로운 운동신발들도 개발하여 그 생산량을 높이게 되였다.

지금 공장에서는 신발생산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여 화상처리프로그람에 의한 신발도안창작과 카메라에 의한 3차원발측정으로 조선사람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신발을 설계하고 있다.

인민들의 생활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진행해나가겠다는것이 이 공장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사출직장에서

품질검사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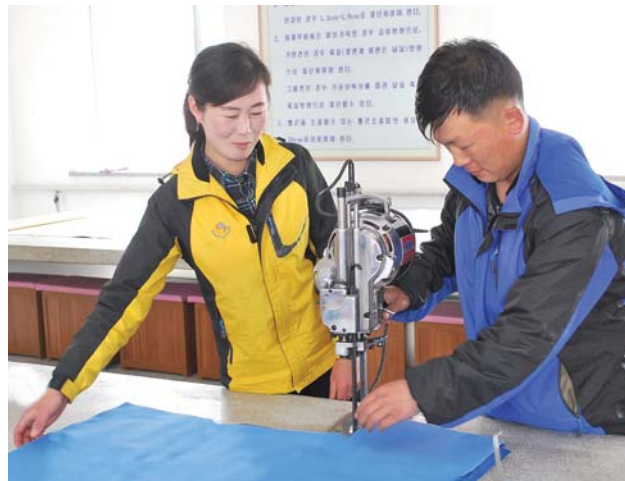
생산된 제품들은 구매자들의 호평을 받는다.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에 힘을 넣어

지난 5월 함경북도의 청진시에서 진행된 상품전람회에서는 청진가방공장에서 출품한 여러가지 종류의 가방들이 관람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형식이 새롭고 색갈이 정말 곱다.》,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잘 만들었다.》, 《지난 시기에 비해 리용에 편리한 점들이 많다.》…

공장의 제품들이 인민들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바탕에는 이곳 종업원들이 지닌 부모다운 애틋한 심정이 깔려있다.

공장에서는 각이한 학생, 어린이들의 심리적 특성과 편리에 맞게 가방의 질을 높이는것과 함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힘을 넣고있다.

가방생산의 선행을 맡은 공장의 기술준비실의 기술자들은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가치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다.

도안창작실에서는 가방상표와 함께 소학교와 초, 고급중학교, 대학에 이르는 남녀학생가방의 특성에 맞는 모양과 형태, 색갈을 가진 수많은 도안창작품을 내놓고있다.

생산자들도 도안창작사업에 너도나도 참가하고있다. 그림인쇄공 최진향, 재봉공 최은심을 비롯한 생산자들은 자기들도 가방생산의 주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도안창작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고있다.

김금주 도안창작실 실장은 《몇달사이에 공장적으로 240여개의 도안이 창작되였는데 그 대부분이 생산자대중이 내놓은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재단과 재봉, 인쇄, 완성 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들마다에서 종업원들은 자기 자식들, 동생들의 가방을 만드는 심정으로 맡은 일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공장에서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과학자, 연구사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진동, 비내림, 더운물, 자외선시험기를 만들어 품질검사의 과학성을 담보해나가고있다.

질좋고 문양고운 가방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이곳 종업원들의 노력으로 도안의 학령전어린이들과 소학교를 비롯하여 각급 학교,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공장에서 생산된 새형의 가방들이 일식으로 공급되였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자력갱생, 그 바통을 이어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상설비생산에 적극 떨쳐나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는 오래전부터 조국인민들속에 잘 알려진 기업소이다.

지난 시기 기업소는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선진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여 라남의 봉화를 지펴올렸다. 기업소는 오늘도 그 바통을 변함없이 이어나가고있다.

기업소의 그 어느 직장에 가보아도 오늘의 만리마속도창조운동에서 선구자가 되려는 로동계급의 앙양된 열의를 느낄수 있다.

권양기직장에서는 지난해 자체의 힘과 기술, 설비로 새형의 250㎾권양기를 개발한데 이어 그것을 계렬생산하기 위한 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새형의 권양기생산공정이 확립되면 수입에 의존하던 권양기를 우리 식으로 대량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된다는것을 자각한 직장의 로동계급은 여러가지 난관들이 제기되지만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설비조립을 완성해가고있다.

각지에서 제기되는 대상설비생산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도 활발해지고있다.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은 서로 합심하여 왕복가공할수 있는 량면바이트를 창안제작하여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줄 설비가공을 이전에 비해 2배로 높이였으며 중요기업소들에 보내줄 특대형마광기의 설비가공도 계획된 날자보다 15일 앞당겨 완성하였다.

설비현대화이자 가공의 질이고 속도라는것을 명심한 채탄기직장의 로동계급들은 설비의 자동화, 정보화를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이곳 로동계급은 각종 공작기계에 수자표시장치도입과 PLC화, CNC화를 실현하여 제품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훨씬 높이고있다.

주강직장을 비롯한 다른 직장들에서도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

주강직장에서는 여러 광산에 보내줄 각종 마광기, 파쇄기의 소재생산을 원만히 보장하여 제품가공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뿐만아니라 제관직장에서는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줄 각종 설비제작을 10여일간이나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영수기술부기사장은 《기업소앞에 부과된 대상설비생산과제는 방대하고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중의 정신력과 인재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앞으로도 맡겨진 과업을 무조건 수행할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설비가공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글 본사기자 진룡진
사진 본사기자 김춘혁

인공지능개발에서의 경쟁과 도전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대학 지능기술연구소 소장 최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인공지능은 콤퓨터에 기입한 기억, 판단, 계산과 같은 기능을 리용하여 콤퓨터가 사람의 지적활동과 비슷한 동작을 수행하게 한다.

오늘 여러 나라들이 인공지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개발에 힘을 넣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음성인식, 화상인식, 기계번역 등 인공지능기술은 거의 인간의 지능수준에 도달하고있다.》

인공신경망에 대하여 서로의 견해를 내놓는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기술은 그 개발에 필요한 인재와 연구조건과 같은 문제로 하여 일부 나라들의 독점물로 되고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체의 인재력량에 의거하여 인공지능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말하였다.

20대의 연구사들이 다수를 이루고있는 이 연구집단은 지난 기간 인공지능분야에서 이룩된 다른 나라들의 성과와 경험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조국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높은 수준의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지능형고성기제작방안을 토의하는 연구사들

그 나날 그들은 대규모자료기지를 빠른 시간안에 작성할수 있는 조선어음성인식프로그람과 조선어문자인식프로그람을 개발하였다.

이미 국내에서 이 분야의 패권적지위를 차지한 연구집단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람들을 부단히 갱신해나가고있다.

박대혁연구사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음성인식프로그람과 문자인식프로그람이 개발되였지만 그것은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에 해당되는 기술이다.

조선어에 맞는 음성인식프로그람과 문자인식프로그람을 개발한데 맞게 그것을 더욱 완성시켜나가는것이 현 단계에서 우리의 과제

다국어신경기계번역체계개발에 전심한다.

수 기

내가 안겨사는 품

신정아(가운데)

지난 3월 10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이였다.

우리 선거장앞에서는 아침부터 명절옷차림을 한 수많은 선거자들이 흥취나는 음악에 맞추어 춤마당을 펼쳐놓고있었다.

조선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나는 남편과 3살짜리 딸애의 손을 잡고 선거장으로 갔다.

선거자명부앞에서 나는 나의 이름을 한동안 바라보며 서있었다.

그러느라니 저도 모르게 공화국의 품에 안겨 꿈같이 흘러간 지난 20년 세월이 돌이켜졌다.

우리 아버지가 어린 세자식을 데리고 공화국으로 올 쉽지 않은 결심을 하게 된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아버지는 서울에서 크지 않은 기업을 운영하여 그럭저럭 살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돈이 부족하여 생활하기가 어렵다면서 어린 우리 세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 그때 나의 나이는 9살이였고 동생들은 5살, 2살밖에 안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와 우리 형제는 함께 려행을 갔다가 차사고를 당하였다. 그 사고로 앞좌석에 앉아 차를 운전하던 아버지가 제일 크게 상하였다. 아버지는 당장 대수술을 받아야 할 몸이였지만 우리 자식들의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느라 자기의 수술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머니도 없는 우리를 불편한 몸으로 키우느라 무진 애를 쓰던 아버지는 자연히 인민중시의 정치가 실시되고있는 공화국에 대한 동경심을 품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지구를 멀리 에돌아 공화국의 품에 안긴 우리는 공업도시인 함흥시의 제일 좋은 살림집에서 마음씨고운 새어머니까지 맞아들여 행복한 생활을 누리였다.

서울에 살 때 차사고를 입고도 많은 치료비를 부담할수 없어 수술을 포기하였던 아버지는 공화국의 무상치료제의 혜택으로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았다.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일가친척이 없는 우리들이 외로와할세라 아버지와 동생을 하루빨리 완치시키기 위해 수많은 고가약과 보약까지 보장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나는 남조선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여 성적이 높지 못했었는데 우리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과 동무들이 사심없는 학습방조를 주어 나의 학업성적은 몰라보게 높아졌다. 마침내 나는 그렇게도 소원하던 배움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동생들인 혜선(둘째)이와 창은(셋째)이도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나가고있다.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것처럼 우리와 같이 평범한 가정에서 세자식을 모두 대학공부시킨다는것은 남조선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였다.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는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어디 가나 덕과 정이 차넘치는 이 제도를 위하여 힘껏 일하여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도 지니였다.

공화국의 품에 안겨산 20년을 돌이켜보면 볼수록 소리없이 꺼져가던 우리를 한품에 안아 새 생명을 주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준 은혜로운 공화국은 온 겨레가 안겨살 진정한 조국의 품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심장에 새기게 되였다. 하여 이날 선거표를 받아쥔 나는 고마운 이 제도를 깨끗한 공민적의무와 량심을 안고 더 잘 받들어갈 마음을 담아 찬성의 한표를 바치였다.

다시 말하고싶은것은 내가 이 제도를 제일 귀중히 여기며 사랑할뿐만아니라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지키고 빛내이는것을 공민의 자랑으로 여긴다는것이다.

함경남도 함흥시 회상구역
미래원 신정아

이다.》라고 말하였다.

기계번역의 폭을 넓히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신혁철, 김룡혁, 김현철, 김준규연구사들은 수학, 물리학, 화학, 경제학, 력사학을 비롯한 근 30개에 달하는 자연 및 사회과학부문의 영어, 중어, 도이췰란드어로 된 자료들을 조선어로 번역할수 있는 프로그람을 개발하였다.

과학기술전당과 인민대학습당에 도입된 이 체계는 다른 나라들의 문헌자료들을 조사, 분석하는데서 높은 속도와 정확성을 보장해주고있는것으로 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학연구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연구소에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통합생산 및 경영정보관리체계와 과학기술보급체계를 비롯한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아 해당 단위의 정보화,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큰 기여를 하였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의 통합생산체계확립, 통합검색체계개발, 피부분석기제작…

특히 그들이 개발한 조선어음성인식프로그람《룡남산》과 평양무궤도전차공장 통합생산체계, 과학기술보급체계《룡마》는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8에서 1등을 하였다.

인공지능기술개발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것으로 하여 지능기술연구소는 주체105(2016)년과 주체106(2017)년에 정보기술우수기업으로, 주체107(2018)년에는 조국의 10대최우수정보기술기업으로 선정되였다.

지금 그들은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인공지능기술의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고있다.

김광혁실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기술발전의 최종목표는 인간의 지능수준에 완전히 도달하는것이다. 그 실현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할것이며 모든 노력을 기울일것이다.》

인공지능기술을 놓고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에 도전하는것, 이것이 그들의 연구자세이다.

그들의 높은 창조적안목과 지식, 나라의 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 야심만만한 배짱은 반드시 자기들이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고야말것이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6살 난 《화가》

손령송

평양시 모란봉구역 긴마을1유치원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6살 난 어린이가 있다.

그는 높은6반에 다니는 손령송어린이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것과 그 어떤 사물현상들도 생동하게 그려내는 그를 꼬마《화가》라고 부른다.

그가 5살때에 그린 크레용화 《봄이 왔어요》, 《손잡고 유치원 가요》, 《우리 집 자랑》, 《꽃씨를 심어요》와 연필화 《조선의 국화－목란》, 《은방울꽃》, 《소나무》 등은 재미나는 유치원생활과 꽃 등을 방불히 그린것으로 하여 실물을 보는것만 같다.

특히 연필화 《소나무》는 그림그리기에 재능을 가진 령송어린이의 특징을 잘 엿볼수 있게 한다.

연필화 《소나무》는 오랜 세월 자란 소나무이지만 아직도 왕성하고 푸르청청한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온갖 풍상고초를 꿋꿋이 이겨내며 사시장철 푸르러 생기를 돋구는 소나무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있다. 터실터실한 줄기에서 뻗어져 옆으로, 아래로 드리운 아지들과 무성한 솔잎은 세월의 흐름에도 변함을 모르는 소나무의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그런가 하면 연필화 《조선의 국화－목란》에서는 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를 비교적 정확하게 보장하고있다.

같은 나이의 어린이들보다 인식능력이 높고 관찰력과 기억력이 좋은 그의 그림들은 하나하나가 화면의 구도와 운동, 특징, 질감 등이 뚜렷한것이다.

엄마, 동생과 함께

그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지는 1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유치원에 들어올 때 묻는 말에 류창하게 대답하는 그에게서 한향란교양원은 남다른 언어표현과 사고능력을 발견하였다. 그후 일기장에 그린 그림에서 교양원은 그의 또다른 재능, 그림에 대한 천성적소질을 찾게 되였다.

령송이의 그림그리는 솜씨는 그때부터 유능한 교양원의 지도와 방조속에 몰라보게 발전하였다.

올해에 진행된 광명성절경축 미술작품전시회 《조선의 국수－소나무》에는 그가 그린 연필화 《우리 나라 소나무》도 출품되였다.

그의 그림을 본 전문가들과 참관자들은 6살 난 어린이의 재능을 두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6살 난 《화가》의 앞날을 기대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전룡진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령송이가 그린 그림들의 일부

상식

우리 인민들이 좋아한 옷색갈

일찍부터 진한것보다 연하고 부드러우며 선명한 색채를 좋아한 우리 민족은 옷색갈도 이에 맞게 선택하였다.

특히 계절적특성에 맞게 봄철에는 산과 들에 피여나는 살구꽃, 진달래꽃, 개나리꽃을 비롯한 여러가지 꽃들과 나무잎들이 움트고 푸르러가는 자연의 환경에 어울리는 연분홍색이나 연두색, 연자주색, 노란색과 같은 연하고 밝은색의 옷을 즐겨입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내물의 신선하고 차거운 감을 련상케 하여주는 흰색, 연한 푸른색과 그밖의 시원한 색갈의 엷은 옷감으로 옷을 지어입었다.

그리고 오곡백과 무르익는 가을철에는 도라지꽃, 들국화, 산나리꽃의 색갈처럼 청신한 느낌을 자아내는 감색, 능금색, 단풍색 등의 짙고 풍만한 감을 주는 색갈을 선택하였다.

맵짠 겨울철에는 훈훈한 느낌과 포근한 감을 주는 색갈의 옷을 즐겨입었다.

*　*　*

애착을 안고사는 사람들

얼마전 우리는 조카들이 살고있는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을 소개해달라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림명순동포의 부탁을 받고 이곳을 찾았다.

어딘가 멀리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해풍이 한여름의 더위로 달아오른 우리의 몸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바다가도시의 특유한 맛을 느끼며 포항구역으로 들어서던 우리의 눈에 이채로운 모습이 안겨들었다.

시원하게 뻗어간 도로를 따라 규모있게 들어앉은 살림집들과 봉사기관들, 함경북도도서관과 공원…

더욱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포항구역중심부에 새로운 형식의 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모습이였다.

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던 과정에 우리는 지원나온 림명순동포의 조카들인 김옥란, 김옥선녀성을 만날수 있었다. 우리의 취지를 알게 된 그들은 무척 반가와하며 구역은 물론 도관내에서 진행되고있는 건설대상들에 대해 손가락을 꼽아가며 알려주는것이였다.

어랑천발전소, 경성군 온포온실농장, 양생원, 청진극장 등 나라의 경제발전과 도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큼직큼직한 대상들이 참으로 많았다. 그리고 살림집과 공공건물개건 등 구역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물론 건설자들이 어련히 말아하고있지만 주인은 어디까지나 구역주민들이 아니겠는가고 하며 그래서 이렇게 건설장에 매일같이 지원나온다고 말하였다.

우리 글을 익혀가는 포항유치원어린이들

포항구역의 일부

비록 무심히 하는 이야기인것 같지만 그를 통해 우리는 건설로 들끓는 도의 벅찬 숨결과 구역주민들의 주인다운 마음을 느낄수 있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보고싶은 마음을 안고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잘하기로 소문난 구역안의 가내축산관리위원회를 먼저 찾았다.

종축작업반과 병설로 되여있는 관리위원회건물은 무척 아담하였다. 그리 크지 않은 종축작업반에는 돼지, 오리, 게사니, 칠면조를 비롯한 집짐승들이 각각 백수십마리나 있었다.

조옥희관리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종축작업반말고도 구역의 매 동들에 있는 비육작업반과 경성군 오상리의 부업지에 있는 집짐승마리수까지 합치면 천수백마리에 달한다는것이였다.

포항구역미래원

포항은하피복공장에서

구역식료공장에서

구역에 꾸려진 어린이교통공원

축산관리위원회에서는 도시에 자리잡고있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자력갱생하여 축산기지를 실정에 맞게 꾸리고 종축체계를 바로세워 새끼돼지생산을 앞세웠으며 식료가공기지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리용하여 고기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이고있었다.

한해에만도 수백t의 고기를 생산하여 구역안의 주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고있다는 이곳 종업원들의 기쁨넘친 모습을 뒤에 남긴 우리는 피복공장으로 향하였다.

최근년간 공장에서는 자력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으로부터 5년전 조국에서는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참가자들가운데는 김용기 평양연극영화종합대학 영화정보기술학부 교원도 있었다.

그는 대회기간 평양시의 여러곳을 참관할 때에도 깊은 사색에 잠겨있었고 남들이 잠든 깊은 밤에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글을 썼다.

그가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했는지는 그로부터 몇달후에 《5.1립체록음》이라는 교재를 집필하여 내놓아서야 밝혀졌다.

대회기간에 세계영화계를 뒤흔드는 훌륭한 영화들을 창작하자면 영화록음의 형상수준도 높여야 하겠다고 생각한 그는 이 교재를 집필할것을 스스로 결심하고 달라붙었다.

나이도 년로보장나이를 훨씬 넘겼고 고혈압을 앓고있었지만 그는 훌륭한 록음사들을 양성할 의무를 안고 교재집필에 많은 품을 들이였다.

물론 여러 극장들에 5.1립체록음체계가 도입되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알았지만 당시 정확한 교재가 없어 교육실천에서 애를 먹은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영화실태를 연구하고 립체재생음공간에서의 음상정위와 음상이동을 생동하게 실현하고 음악록음을 5.1립체록음방법으로 진행하며 5.1립체환경음을 진실하게 형상하기 위하여 구성체계도 그에 맞게 세워나갔다.

선구자의 길은 언제나 고심참담하다고 김용기교원은 애로를 느끼기가 일쑤였다.

김용기

그럴 때마다 그의 눈앞에 떠오른것은 아버지의 모습이였다.

주체61(1972)년 3월 일본에 있는 조선대학교 학생이였던 그가 조국으로 귀국하기 전날 아버지는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였다.

《용기야, 외아들이면서도 맏이인 네가 조국으로 가겠다니 아버지는 정말 기쁘다. 록음사를 하고싶은게 네 소원인데 조국에 가서 꼭 성취하거라. 그러나 당부할것은 록음사는 언제나 남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거라. 말하자면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거목을 자래우는 뿌리와 같다고 할가. 헌신할수록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진가를 느끼게 될것이다.》

그는 귀국하여 평양영화대학(당시) 영화록음학과에서 공부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록음학과 1기생으로 졸업하여 영화예술부문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예술작품들에 특수음향효과를 발생, 합성하기 위한 전자장치인 음향효과발생기를 만들어낸 그는 《록음기의 원리》, 《영화음향형상리론》 등 많은 참고서, 교재들을 집필하였으며 그 나날 부교수로 되여 수많은 록음연구사들과 전문가들을 키워냈다.

…

추억을 더듬으며 그는 끝끝내 《5.1립체록음》이라는 교재를 마무리 짓게 되였다.

올해 나이가 68살인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고있다.

《록음작업은 여러가지 소리를 원래의 소리로 되살릴수 있도록 록음매체에 기록하는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작업이 아니라 영화화면에 생명을 넣어주는것과 같은 기본형상작업의 하나입니다. 화면이 아무리 좋아도 소리가 나쁘면 영화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수 없습니다. 훌륭한 영화를 창작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록음사들에게 달려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록음실기강의를 진행한다.

대학에 가서 김용기교원 하면 그의 얼굴을 잘 모른다.

하지만 그가 쓴 교재들은 누구나 알고있으며 그의 제자들은 늘 모교의 선생님을 잊지 못해하고있다.

하기에 공훈예술가 길금성은 《김용기선생님은 대학시절 우리들에게 늘 〈뿌리〉가 되여야 한다고 강의하였습니다. 오늘 그 〈뿌리〉들이 영화예술부문에서 거목을 자래우고있습니다.》

3년전 일본에 사는 녀동생은 평양을 방문하여 오빠를 만나보고는 조국에 와서 소원을 성취했다고 그의 두손을 놓지 못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슬기

갱생과 과학기술을 앞세워 실소비측정기구를 비롯한 여러 설비들을 실정에 맞게 창안하여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이였을뿐만아니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사용자들의 주문도 받아 제품의 형태와 색갈 등을 다양하고 특색있게 만들어주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있었다.

성과의 비결에 대해 우리와 만난 공장의 일군인 라영란은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고 과학기술을 앞세운데 있다고 말하였다.

피복공장뿐만이 아니였다.

자체의 힘으로 물엿농축가마를 새롭게 개조하고 푸젤유분리기를 만들어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는것과 함께 질을 더욱 높이고있는 식료공장이며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많이 만들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는 고려약공장 등 우리가 들려본 구역안의 공장들과 단위들이 증산의 동음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돌아볼수록 우리는 자기 힘으로 더 좋은 래일을 앞당겨오려는 구역주민들의 깐진 일본새와 드높은 열의를 느낄수 있었다.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소중히 자리잡고있는것인지. 우리는 그것이 자기가 사는 고장과 일터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이 낳은 귀결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그 애착, 애국심에 의해 구역의 모습은 더욱 변모되리라는 확신을 안고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조선속담 (체험)

- 제 밥 덜어줄 샌님은 물 건느면서부터 안다

남을 위해서 발벗고 나설 우정과 인정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함께 어려운 처지를 당해서야 비로소 알게 됨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제앞에 안 떨어지는 불은 뜨거운줄 모른다

흔히 제가 직접 당한 일이 아니면 아무리 어렵고 곤난한 일도 그 괴로움을 잘 모르기가 일쑤임을 비겨 이르는 말.

-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비에 젖은 흙이 마르면서 굳어지듯이 어떤 풍파를 겪은 뒤에 일이 더 든든해지는 경우에 비겨 이르는 말.

* *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목단강지구협회 부회장 림명순이모 앞

화목한 우리 가정입니다

이모, 건강하십니까.

80고령의 몸으로 동포들을 조직에 묶어세우고 애국사업을 하시느라 무척 힘드시겠지요.

리인철과 리문이랑 다 잘 있겠지요. 어릴 때 한번 본 조카들의 모습이 아직도 저의 눈앞에 선히 떠오릅니다.

지난해 조국을 방문한 이모를 만났을 때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1년이 되였습니다. 그때 이모를 만나보았는데도 또 보고 싶습니다.

참, 지난 4월 우리는 텔레비죤에서 이모를 보았습니다. 중국의 길림에서 진행되는 태양절경축 재중동포들의 행사를 소개하는 편집물에 이모의 모습이 비쳐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국에 왔을 때의 모습 그대로 정정한 이모를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동생 옥선이와 저의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도 같은 심정입니다.

지난 5월 세대주와 제가 예순번째 생일을 함께 쇠였는데 옥선이와 평양에서 사는 자식들이 모두 참가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정적인 단란한 분위기에 휩싸이고 보니 이모도 함께 기쁨을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말하였습니다. 예로부터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듯이 기쁜 일이 생길 때면 이모생각이 그 어느때보다 간절해지군 합니다. 이모도 우리와 다를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 온 가정이 함께 찍은 사진을 《금수강산》잡지를 통하여 이모에게 보냅니다.

그날 자식들뿐아니라 세대주가 치료해준 사람들과 저의 제자들로부터 꽃다발들과 건강을 바라는 인사를 받을 때 지나온 생활을 돌이켜보게 되였습니다. 사실 저나 세대주가 오늘까지 건강하여 보람찬 삶을 누려올수 있은것은 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가 있었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세대주만 보아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고 함경북도 수원제1중학교에서 교원으로, 함경북도인민병원에서 의사로 보람찬 삶을 누려올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국철이와 며느리도 그래, 청진광산금속대학을 다닌 딸도 그래 우리 집식구들은 다 무료교육의 시책에 의해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정말 이날 이때까지 알게 모르게 나라의 혜택만을 받으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나라의 고마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에 저와 세대주는 비록 년로보장을 받았지만 그냥 앉아있을수 없어 사회주의건설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심정으로 어랑천발전소건설장과 경성군 온포온실농장건설장을 비롯한 여러 건설장들에 지원물자들을 보내주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대상건설들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데 이 사업에 인민들이 너도나도 떨쳐나서고있습니다.

자식들도 맡은 일을 잘하고있습니다. 이모가 조국에 올 때마다 만나보고 늘 대견해하던 국철이는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기술교류사에서 연구사로 일하고있습니다. 국철이는 연구사업을 하는 바쁜 속에서도 지금 박사학위론문을 준비하고있다고 합니다. 며느리와 딸, 사위들도 일을 잘하여 직장에서 존경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을사람들도 화목한 우리 가정을 부러워합니다.

이모,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그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탁하고싶은것은 이모가 90살을 바라보게 되는데 건강하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
청송3동 14인민반
김옥란조카 올림

금방석이라는 말을 두고

조국에는 예로부터 귀한 사람 금방석에 앉힌다는 말이 있다.

언제인가 나는 조국청년들이 부르는 노래에서 이 말의 참뜻을 깊이 깨달은 때가 있다.

그 노래제목은 《금방석》이다.

서정적이면서도 절절한 이 노래에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떠받들리우며 보람있게 살면서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조국청년들의 모습이 한껏 어리여있다.

금은 자연계에 드물게 존재하는것으로 하여 누구나 귀하게 여기는것이다.

사람들은 보배스러운것에 금이라는 표현을 많이도 붙였고 그것을 무던히도 아끼였다.

그런데 조국에서는 청년들을 금과 같이 여기고 그들모두를 금으로 만든 방석에 앉힐 정도로 내세우고있다.

금방석,

정말 몇번이고 이 말을 되새길수록 생각도 깊어진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청년들이 력사의 변두리에 밀려나 사회의 우환거리로 버림받고있을 때 조국에 펼쳐지는 현실이 너무도 그와는 극적으로 대조된 생활이기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의 양양한 앞날을 열어나가는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어디서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조국청년들.

청년들에 대한 조국인민의 믿음과 사랑은 맹목적인데서 오는것이 아니였다.

조국청년들은 조국의 큰 짐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에 참가하여 조국의 청년들을 만나보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청년들의 위훈을 나는 잘 알고있다.

조국청년들은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라는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남먼저 달려나가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청년들의 그 위훈을 전하고있다.

령하 30℃를 오르내리는 백두의 혹한속에서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자기의 고귀한 피와 땀을 묻으며 굴함없이 발전소를 일떠세운 청년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이 너무도 대견하시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그들의 위훈을 값높이 치하해주시였다.

4년전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였던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까지 공사를 완공하자고 하시면서 완공의 기쁨속에 이곳에서 청춘들의 대합창공연을 진행하자고, 자신께서 꼭 보시겠다고, 그날 발전소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찍자고 하시였다.

그 약속은 청년들의 심장마다에 불을 달아주어 세상에 없는 기적을 창조하게 하였으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이 땅에 보란듯이 솟구쳐오르게 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며 스스로 앞 못 보는 영예군인의 안해가 되고 자기의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이 조국의 청년들이며 처녀의 몸으로 부모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는것이 조국의 청년들이다.

도시에서 나서자란 청년들이 인적드문 섬마을분교 교원으로 되고 풍랑세찬 간석지건설장과 탄광개발지로 달려가 성실한 노력과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것도 조국의 청년들이다.

바로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런 청년들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금방석에 앉히고저 하늘의 별을 따다가 젊은 가슴들에 달아주고싶다고 말씀하신것 아니겠는가.

청년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고 그들을 행복의 금방석에 앉혀주는것은 진정 조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오늘 조국청년들뿐아니라 해외에서 사는 동포청년들도 조국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저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하고있다.

나는 확신한다.

금방석에 앉혀도 아깝지 않을 계승자들이 대를 이어 억척같이 성돌이 되여 받들어가고 온갖 도전과 시련을 웃으며 헤쳐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에 우리 조국은 세월이 흐를수록 날을 따라 더욱더 부강번영하리라는것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
부회장 김권

인상기

보면 볼수록 더욱 느껴지는 감정이다

조국에 이런 말이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지만 조국의 현실을 놓고 나는 이 말을 부정하고싶다. 한것은 조국을 방문한 나의 시야에 비껴든 모든것들이 정말로 놀라왔기때문이다.

조국은 10년이 아니라 매일, 매 시각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고있는것 같다.

새로운 거리들,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건축물들…

그중에서도 려명거리는 나의 놀라움을 더욱 자아내게 하였다.

물론 중국에서 려명거리의 규모라든가 살림집들의 내부에 대하여 알고있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너무도 웅장하고 멋이 있어서 눈길을 뗄수 없었다. 더우기 이렇게 훌륭한 집들을 평범한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배정받아 산다고 하니 정말 나의 놀라움은 더욱 컸다. 자식들을 데리고 오지 못한 아쉬움도 생겨났다.

이러한 아쉬움은 문수물놀이장과 류경원, 평양양로원 등에서 내가 만나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더욱 느껴지는 감정이였다. 그래서 내가 보고 느낀 이 모든것을 자식들뿐아니라 동포들에게도 그대로 이야기해주어 자식들과 동포들이 조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였다.

중국 베이징시 리룡칠

고국을 더 잘 알게 하였다

대다수 사람들이 고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고국에 대하여 너무도 외곡된 선전에 포로되여있다.

가난하게 산다, 힘들게 산다. …

그러나 고국을 한번 방문하고는 이마를 치면서 이렇게 말하고있다.

고국이야말로 사람들이 사는 보람이 있는 곳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한마디로 고국의 모든 곳들이 적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속에서도 잘 꾸려지고 정갈한 공기가 흐르며 공원같이 아름답기때문이다.

정말 그렇다.

나도 신의주에 려행으로, 공적인 용무로 잠시잠간 나와는 보았어도 평양에는 와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평양에 와보니 내가 너무도 외곡된 선전속에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속에 갈마드는것을 어쩔수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국인민들에게 죄스럽다. 고국인민들은 정의를 사랑하고 자주정신이 강하다.

사람들의 얼굴마다에서 비관이란 찾아볼수 없고 오히려 희열과 랑만이 비껴흐르고있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친절하고 정이 흐르는것은 물론 경치 또한 이를데 없이 좋았다.

그뿐이 아니다.

내가 본 훌륭하게 꾸려진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며 려명거리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있었고 **김일성**종합대학에는 선진적인 교육설비들이 갖추어져있어 인재육성에 이바지하고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더 행복해질 고국의 먼 래일까지도 저절로 그려보게 되였다.

정말 이번 방문은 나에게 있어서 고국을 더 잘 알게 하였다.

중국 단동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상무리사 강성일

애국위업의 주인공들로

이역땅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재일동포사회에서는 새 세대들의 가슴속에 애국의 불씨를 심어주고 민족의 대가 변함없이 이어지도록 후대육성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뜨거운 진정

지금 일본 각지의 동포들이 재일조선인운동의 명맥이 우리 학교에서 이어진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민족교육사업에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지난해 7월 서일본지방에 들이닥친 무더기비로 교사와 기숙사가 큰 피해를 입게 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와까야마조선초중급학교가 짧은 기간에 원상복구되여 창립 60돐을 성과적으로 맞이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일본당국의 민족교육차별정책과 겹쌓이는 경제난속에서 동포들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면서 엄혹한 난국을 타개해나간데 있다.

특히 이 학교의 어머니회 성원들은 학교운영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궂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는 녀성들로 동포사회에 소문나있다.

학교가 있어야 동포들이 모이고 우리 아이들이 떳떳한 조선사람으로 자라날수 있다며 학교재정에 너도나도 보탬을 주고있다.

총련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에도 동포들의 진정이 어려있다.

지난해 2월 일본 지역당국이 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비렬한 차별조치를 취하자 동포들은 보란듯이 《새로운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건설 3개년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하나 자체의 힘으로 실행해나갔다.

그 일환으로 동포들은 경제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학교에 현대적인 인공잔디운동장을 번듯하게 꾸려주어 학생들의 체육열의를 적극 뒤받침해주었다.

민족교육에 힘을 넣어

민족교육사업은 총련의 변함없는 중심과업이다.

《우리 말을 잘 배우고 늘 쓰는 모범학교》의 칭호를 수여받은 총련 도꾜조선중고급학교에서 학생들의 우리 말 발표력과 화술기량을 높여주기 위한 모임을 자주 조직하고있다. 우리 말을 정확히 발음하고 글의 내용을 생동하게 전달하는 랑독경연도 좋지만 대본과 화술, 출연자의 개성이 조화롭게 결합된 재담작품들도 청중의 호평을 자아내고있다. 발표모임을 통하여 학생들은 우리 말의 유구한 력사와 발전과정을 습득하게 되고 동포사회와 민족, 조국에 대한 생각을 더욱 깊이한다.

총련 조선대학교에서도 우리 말과 글을 잘 모르는 편입생들을 위한 학습체계 《오가는 정, 이어지는 우리, 펼쳐지는 미래》운영을 정상화하여 그 실효성을 높여가고있다.

애국의 계주봉을 꿋꿋이

민족동화의 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는 이역땅에서 새 세대들이 애국의 계주봉을 꿋꿋이 이어나가고있다.

70여년전 재일동포들이 일본반동들의 야만적인 폭압책동에 맞서 민주주의적민족교육권리를 피로써 지켜낸 4.24교육투쟁정신은 새 세대들의 가슴속에 애국의 사명감을 깊이 심어주고있다.

애국의 대를 이어나갈 결의를 무대에 올린 총련의 학생소년들

4.24교육투쟁의 목격자, 체험자인 총련 지바현본부 고문 송암우로인이 새 세대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4.24의 넋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되오. 민족교육을 지키는 것은 우리 총련을 지키는 길이고 동포사회를 지키는 길이오.》

총련 도꾜조선중고급학교에서는 4.24교육투쟁과 관련하여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성원들의 초빙강의를 자주 조직하여 학생들이 선대들의 투쟁정신을 배워 우리 학교를 대를 이어 지키고 빛내여나가도록 교양하고있다.

이 과정에 학생들은 인식적의의가 큰 4.24교육투쟁 70돐학습자료집 《넋》을 편집하여 내놓

수기

그 영상 가슴에 새기고

나는 이번에 태양절을 맞으며 또다시 고국을 방문하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뜻깊은 무대에서 고국인민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으며 노래를 부르고보니 나야말로 복받은 삶을 누려온 해외동포가수라는 생각에 격정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은 원예사의 손길에 달려있듯이 인간의 행복한 삶은 뜨거운 민족애를 지닌 위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해외동포 독창가수로서의 나의 생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시작되고 꽃펴났습니다.

내가 광명성절을 맞을 때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고국방문의 길에 오를 때면 위대한 장군님을 다시 뵙게 될것만 같은 생각에 가슴을 울렁이며 즐겨부르는 노래를 조용히 불러보군 합니다.

해빛도 따사로운 화창한
　그 봄날에
이역땅만리에서 장군님을
　뵈웠네
사랑의 미소를 보내시는
　장군님 우러러
축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나의 마음속에 먼저 울리는 노래 《장군님 모신 이 영광 전하여다오》의 구절구절을 외워보느라면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옵던 잊을수 없는 그날이 가슴뜨겁게 안겨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전인 주체93(2004)년 4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국을 친선방문하고계시였습니다. 중국의 당과 정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중국방문을 고도로 중시하고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열렬하고도 따뜻한 환영행사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때 나도 중국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의 한 성원이 되여 그이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였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도 흥분하여 언제 노래를 시작했고 어떻게 불렀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흡한 나의 노래가 끝나자 제일먼저 박수를 쳐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났을 때에는 무대에까지 올라오시여 나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시였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나는 그후에도 고국을 방문하여 또다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노래를 부르게 되였으며 그이를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수많은 동포들이 나를 찾아와 축하해주면서 장군님께서 잡아주신 손을 나도 한번 잡아보자고, 그이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은 나만이 아닌 우리 재중동포들모두가 받아안은 은정이라고 하며 저저마다 감격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격정넘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고국을 위해 별로 한 일도 없는 내가 이런 남다른 영광을 지니였다는 생각에 송구스러웠던것입니다.

사실 나는 배우생활을 시작하던 청춘시절의 대부분을 자기의 명성을 떨치는데 바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많은 국제국내콩클들과 예술공연들에 참가하여 좋은 평가도 받았고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축하의 인사를 받을 때마다 나는 조선사람으로서 민족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여 나는 늦게나마 고국방문의 길에 오르게 되였으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도 참가하게 되였습니다. 고국에서의 나의 감동은 컸습니다. 고국에서는 나를 비롯한 재중동포예술단을 위해 공연준비와 기악편성, 무대장치와 숙소보장 등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주었습니다.

나는 후에야 그 모든 조치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관심속에 취해진것임을 알게 되였습니다.

정말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에 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쓰는 어머니의 심정 그대로였습니다. 그 나날 나의 가슴속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심이 더욱 차넘치게 되였으며 그이를 모시고 독창을 하였던 그날들에 못다 전한 나의 심정, 아니 동포대중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노래에 담아 소리높이 터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습니다.

노래 《장군님 모신 이 영광 전하여다오》의 창작사업은 이렇게 시작되였습니다. 동포대중의 뜨거운 마음과 노력으로 노래는 훌륭히 완성되였습니다. 그에 맞게 나는 새 작품의 가사와 곡상을 무르익혀나갔습니다. 다른 종목들에도 출연해야 하는 바쁜 시간속에서도 나는 훈련장과 차, 집에서도 노래형상을 무르익혀나갔습니다.

몸은 비록 이역땅에 살고있지만 장군님 한분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나와 동포대중의 절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는 고국인민들속에서 절찬을 받았으며 오늘도 높이 울려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비해볼 때 내가 한 일은 너무도 적은것입니다.

해외에서 사는 동포가수인 나의 재능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여 평양에서 성대한 독창회도 여러번 열도록 하여주시고 딸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싶어하는 심정도 헤아려주시여 마음껏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주시였으며 공훈배우로까지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을 눈에 흙이 들어간들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나는 영원히 그이의 소중한 사랑과 은정을 심장속에 간직하고 살것입니다. 비록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였지만 그이는 나와 우리 동포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며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들의 앞길을 밝혀주고계십니다.

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영상을 가슴에 새기고 생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위인칭송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를것입니다.

재중동포 최경호

았다.

동포청년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지난해 9월 중순 교또에서 진행된 동포청년들의 시위행진이 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조국통일》을 웨치며 거리를 누벼나가는 시위대의 앞장에서 교또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이 취주악대의 음악을 울리고 조선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녀학생들이 민족악기들을 연주하며 따르는 광경은 참으로 볼만하였다. 시위행진은 통일을 지향하는 동포대중의 심금을 다시한번 크게 울려주었다.

본사기자

금수산태양궁전방문을 기념하여

고국방문

모든것이 마음에 듭니다

-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 로씨야 원동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 -

지난 4월 태양절을 맞으며 조국을 방문한 김칠성 제1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과 리구율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원동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이 만경봉에 올랐을 때였다.

일만경치가 한눈에 바라보인다는 만경봉에서 그림같이 아름다운 평양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보는 그들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다.

특히 로씨야 모스크바시에서 온 리옥남과 유쥬노싸할린스크시에서 사는 강태수는 《모든것이 듣던바와는 정말 다릅니다. 떠나고싶지 않습니다. 평양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들의 감탄은 변모된 수도의 모습이 확연히 보이는 주체사상탑의 전망대에서는 물론 모란봉에서도 절로 나왔다.

그들은 모란봉에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각계각층 근로자들과 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금치 못했는가 하면 청류정, 감찬정들을 찾아서는 동료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저저마다 기념사진들을 남기였다.

월향전시관에 들려서는 손자들에게 고국방문기념으로 선물하겠다며 조선바지저고리와 민예품들도 샀으며 고국의 유명한 특산들도 샀다.

리태준 싸할린주 꼬르싸꼬브시 회장은 《처음으로 고국에 왔는데 보고 듣는 모든것이 새롭고 마음에 듭니다. 이제 가면 동료들에게 내가 본 고국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며 고국방문을 권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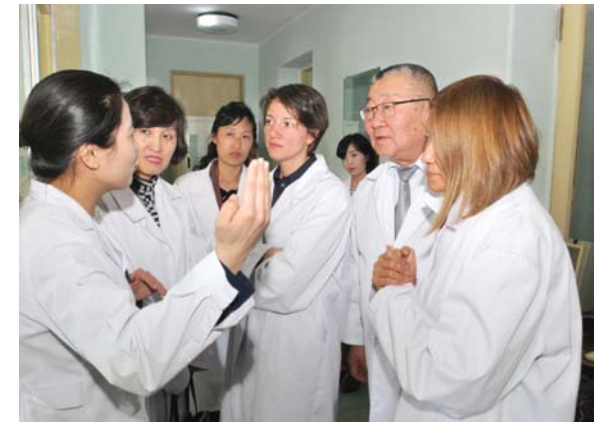
동포들은 이밖에도 평양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고국에 대한 리해를 깊이 하였다. 하기에 그들은 태양절 아침 고국의 놀라운 전변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드리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주체사상탑전망대에서

주체사상탑을 배경으로

제21차 **김일성**화축전장을 돌아보았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우)와 평양산원(아래)을 참관하였다.

봄을 맞은 만경봉을 돌아보며

우리 민족의 반침략투쟁사 (4)

7세기 중엽에 이르러 고구려는 외래침략세력과의 치렬한 대결장으로 되였다.

고구려인민들은 또다시 반침략조국방위의 성전에 떨쳐일어났다.

고구려의 강대성과 그 위력은 645년에 일어난 전쟁에서도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여기에서 안시성전투는 전쟁의 운명을 결정짓는데서 큰 작용을 하였다.

안시성은 당시 고구려의 전연방어성들가운데서 중요한 거점으로서 군사전략적으로나 지리적위치로 보아 여러 성들의 방어에 큰 영향을 미치였다.

이미 일부 전연방어성들이 적들에게 함락된 조건에서 이 성의 성과적방어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되였다.

이로부터 고구려에서는 이 전투에 커다란 전략적의의를 부여하고 이 성을 지켜내는데 많은 력량을 돌리게 되였다.

고구려의 총지휘부에서는 15만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이 성을 지원하게 하였으나 지휘관들의 전술상 잘못으로 하여 패전하고 그들자신은 적들에게 투항하였다. 그리하여 이 성은 고립무원한 상태에 놓이게 되였다.

그러나 성의 군민은 양만춘장군의 지휘밑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다.

성방위자들은 침략군의 우두머리가 나타나기만 하면 북과 징을 두드리고 고함을 치면서 욕을 퍼부었다.

이렇게 되자 적들은 성을 함락하면 성안의 남자들을 모두 생매장해버리겠다고 을러메며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성을 공격해왔다.

양만춘장군은 밤에는 불의에 기습전을 단행하여 적들이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게 하였다.

침략군의 우두머리는 고구려군의 반격에 계속 얻어맞기만 하고 공성무기의 위력도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자 부하들에게 성보다 더 높은 흙산을 쌓아 성 우에서 공격할것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적들은 성의 동남쪽 모퉁이에 60일동안 50만공수를 들여 밤낮없이 흙산을 쌓았다.

적들의 기도를 알아차린 양만춘장군은 그에 대처하여 전투는 전투대로 벌리면서 성벽을 높이 쌓도록 하였다.

성벽과 흙산이 승벽내기로 저마끔 높아지던 어느날 적들이 쌓은 흙산이 무너지면서 안시성의 일부 성벽을 무너뜨리였다. 위기일발의 순간 고구려군은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흙산을 점령하였다.

침략군의 우두머리는 흙산을 지키고있던 적장의 목을 베버리고 빼앗긴 흙산을 차지하기 위하여 3일동안이나 총공세를 들이댔으나 무리죽음만을 당하였다.

엎친데덮친 격으로 적들의 군량이 밑창이 난데다가 찬바람까지 불어 날씨는 추워지기 시작하였다.

연 88일간이나 싸웠지만 성을 끝내 점령할수 없었던 침략세력의 우두머리는 하는수없이 9월 18일에 총 퇴각명령을 내렸다.

양만춘장군은 곧 적에 대한 추격전을 전개하였다.

결국 침략군은 숱한 주검을 내고 도망가지 않을수 없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전투때 침략군의 우두머리는 양만춘장군이 쏜 화살에 맞아 애꾸눈이 되였다고 한다.

침략군의 우두머리는 645년 전쟁에서의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돌아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서 《고구려를 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고구려인민들이 이 싸움에서 그렇게도 기세등등하던 침략군들을 격파할수 있은것은 평소에 성을 튼튼히 꾸리고 싸움준비를 잘한데도 있지만 성안의 모든 군사들과 인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있었기때문이다.

조국의 영예를 귀중히 여기는 고구려인민들의 희생적인 투쟁에 의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이 전투는 고구려인민들의 용감성과 완강성, 불굴의 투지와 애국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준 전투였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강세권

야 화

옥서의 붓글씨

어느 한 마을의 서당앞에서 벌어진 일이였다.

《자, 너희들중에서 누구든지 이 붓대를 발로 냅다 차거라.》

커다란 현판우에 꾹 박혀있는 붓대끝을 여윈 손가락으로 틀어쥔 늙은 선비는 주위에 빙 둘러선 서당아이들에게 말했다.

서당아이들은 어리둥절했다.

서당현판을 새로 써붙인다고 기쁨에 어린 눈길들이 기묘한 글씨가 흘러나오는 붓끝에 몰박혀있는데 늙은 선비는 마지막획을 남기고 발로 차라는것이였다.

(어쩌자는걸가?)

늙은 선비는 제편에서 오히려 의아한 눈길로 아이들을 돌아보며 재촉했다.

《그래 붓대를 찰 용기들이 없느냐? 졸장부들같으니…》

그제야 아이들속에서 코흘리개 하나가 썩 나서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제가 차겠어요.》

선비는 동가슴을 내밀고 서있는 사내애를 훑어보고나서 고개를 끄덕이였다.

《오냐. 붓대를 차되 사정을 보아서는 안되느니라. 있는 힘을 다내여 차거라.》

그는 퍼줄이 퍼렇게 살아오른 손으로 붓대끝을 꽉 진채 그 밑을 차라고 가리켜보였다.

그러자 사내애는 코를 훌쩍거리고나서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이들은 모두 근심스러운 얼굴이 되였다. 다 써놓은 현판을 한순간에 망치면 어쩌랴 하는 표정들이였다.

드디여 뒤걸음쳤던 사내애가 《얏-》 하고 몸을 앞으로 뻗으며 세찬 발길로 붓대를 걷어찼다.

바로 그 순간에 늙은 선비는 끙- 소리를 지르며 붓대를 비켜쳐들었다.

《야-》 하고 일시에 환성이 터져올랐다.

현판에 힘있게 뻗쳐난 마지막획이 그어졌던것이다.

선비는 발길로 차는 힘을 리용하여 그 마지막획을 이렇듯 꿈틀거리는 룡의 기상이런듯, 날아오르는 학의 날개련듯 기묘하고 억세게 그을수 있었던것이다.

《예로부터 바늘힘으로 먹을 갈고 소힘으로 붓대를 잡으라고 일러오거니 너희들 알겠느냐?》

선비는 서당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붓을 필갑에 넣었다. 그리고 나타나던 때와 같이 초라한 선비의 모습그대로 어디론가 길을 떠나갔다.

그가 바로 한생을 붓글씨로 늙어오는 그 유명한 옥서라는 선비였다.

옥서는 붓글씨에도 능할뿐아니라 활쏘는 재주도 여간 아니였다.

1472년에 인풍루가 건설된 후 마흔네해가 지나서 강계로부터 장자강을 거슬러 135리 남쪽에 있는 전천의 다재물이라는 마을에 학무정이 세워졌다.

역시 글씨로 소문난 옥서가 그 정자의 현판을 썼다. 점과 획들은 그 하나하나가 특색이 있고 부수와 획수들도 한결같은 조화를 이루어 꿈틀거리는 글씨였다. 그런데 목공들이 정자의 지붕에 올라 바줄을 드리워 현판을 다 걸어매였을 때 누군가 감탄인지 탄식인지 가릴수 없는 소리를 내였다.

《〈학〉자밑에 점 하나가 빠졌군.》

순간 현판을 올려다보던 뭇시선들이 옥서에게로 쏠렸다.

옥서는 근심스러운 눈길로 현판을 올려다보더니 조용히 활과 화살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

옥서는 붓끝에 먹물을 듬뿍 묻혀가지고 그것을 화살끝에 쳐매였다.

그리고는 활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현판을 겨냥했다.

순간 핑- 하는 소리와 함께 빠졌던 점이 꼭같은 필체로 박히여 현판의 글은 완전무결한것으로 되였다.

오랜 세월이 흘러 어느해 여름 다재물마을에는 여태까지 있어보지 못한 사나운 비바람이 들이닥쳐 학무정은 무너지고 현판은 떨어져 강물에 떠내려갔다. 강계고을앞에서 때마침 어부들이 떠내려오는 현판을 건져냈는데 강계부사가 인풍루 가운데 대들보에 걸어놓게 하였다.

지금도 휴식의 한때를 즐기며 인풍루에 오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인풍루와는 인연이 없는 《학무정》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는것을 보고 의아해한다. 그러나 이 사연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기묘하고 활달하고 힘있는 필체에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 * *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8)

평양의 특산－노치

노치는 예로부터 평양지방사람들이 즐겨 만들어 먹어온 단음식이다.

노치라는 음식이름은 고유한 조선말로서 놓아두고 오래 지진것이라는 뜻에서 《노흐-지짐》과 결합되여 《놓지짐-노침》의 과정을 거쳐 《노치》로 고착되여 불리워진데서 유래되였다고 한다.

평양지방에서 노치를 언제부터 만들어 먹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지짐이 일찍부터 주식물의 하나로 되여온 사실로 미루어보아 력사가 오랜것으로 볼수 있다.

평양지방에서 내려오는 노치를 만드는 방법을 보면 먼저 찹쌀가루를 소금을 푼 끓는 물로 익반죽한다. 그런 다음 떡반대기를 만들어 적당한 크기로 잘라 길금가루를 뿌리면서 단지에 넣고 더운 곳에 놓아 하루정도 삭힌다.

삭힌것을 둥글게 빚어 누런색이 나게 기름에 지진 다음 그것을 물엿이나 꿀에 담그었다가 꺼내면 완성된다.

이렇게 만든 노치는 그 맛이 달고 향기로울뿐아니라 쫄깃쫄깃하고 오래 두어도 잘 변하지 않는다.

평양지방에서는 해마다 추석을 앞두고 집집마다 녀인들이 달밝은 집뜨락에 지짐판을 걸어놓고 노치를 지져 단지에 넣어두었다가 추석날 성묘음식으로 제상에 올려놓군 하였다. 그밖에 민간에서는 노치를 가을걷이때, 새참이나 먼길을 떠날 때 도중음식으로 리용하기도 하였다.

평양의 특산물로 자랑높은 노치는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여 적극 장려되고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박승길

력사인물

채색화를 잘 그린 신명연

신명연(1808년-?)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화가이다.

아버지로부터 그림과 글씨, 시를 배운 그는 산수, 신선 등을 많이 그렸다. 특히 꽃과 새를 위주로 그리는 화조화들을 생동하게 잘 그려 이름을 날렸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동백꽃》, 《매화》, 《국화》, 《모란》, 《꽃과 새》, 《꽃과 나비》 등이 있다.

구륵법(형태의 륜곽을 먼저 쌍선으로 그리고 그속에 색칠을 하는 방법) 또는 몰골법(테두리선을 긋지 않고 한붓으로 단번에 그리는 방법)으로 그려진 그의 그림들은 부드러운 선과 아름다운 색채로 하여 이채를 띤다.

그의 화조화들은 모두 우리 나라의 어디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대상들을 직접적인 관찰에 기초하여 생동하게 그린것으로 하여 짙은 민족적향취와 친근감을 자아내고있다.

신명연은 당시 화단에서 지배적이였던 수묵화(먹그림)에서 벗어나 밝고 생신한 채색화를 그림으로써 우리 나라 민족미술발전에 기여하였다.

* * *

평안남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5)

－ 천왕지신무덤 －

천왕지신무덤은 평안남도 순천시 북창리에 있는 고구려벽화무덤이다.

이 무덤은 인물풍속 및 사신도를 그린 두칸무덤이다.

무덤무지는 방대형이며 무덤칸은 안길, 앞칸, 사이길, 안칸으로 이루어졌다.

앞칸은 장방형으로서 기둥과 천정들에 의해서 세 부분으로 나뉘였다.

서쪽과 동쪽을 가르는 부분에 각각 2개의 기둥과 두공을 세웠으며 그중 서쪽은 바닥까지 한단 높였다. 서쪽은 평행고임천정이고 동쪽은 3각고임천정이며 가운데는 3개의 활개받침이 있는 꺾음천정이다.

안칸 역시 장방형이며 천정은 8각고임과 4각고임을 배합한 독특한 형식이다.

벽화는 무덤칸 회벽우에 그렸다.

먼저 기둥, 두공, 도리, 활개를 그리고 거기에 실물 두공과 활개, 소로 등을 배합하였으며 그다음 아름다운 장식무늬들을 벽면마다에 그려 무덤칸안을 지상건물처럼 꾸렸다.

앞칸의 벽화는 이미 떨어져 없어진지 오래므로 알수 없다.

무덤전경과 무덤안칸 북쪽천정 천왕(모사도)

안칸 벽면에는 6각형테두리안에 련꽃을 측면으로 그려넣은 거북잔등무늬를 전면적으로 그렸다.

그리고 북벽 웃부분에 주인공부부의 실내생활도를 배치하였다.

천정에는 해, 달, 별, 구름과 각종 신선들, 이상한 짐승들을 그렸다.

신선들가운데는 천왕, 지신이란 설명을 단것이 있다. 그래서 이 무덤을 천왕지신무덤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안칸의 벽화 특히 건축장식과 짜임새는 훌륭하다.

천왕지신무덤은 우수한 회화술과 풍부한 신앙세계의 한 부분을 펼쳐주고있을뿐아니라 중요하게는 높이 발전한 고구려의 건축술을 실감있게 보여주는 귀중한 력사자료이다.

* * *

상식

돌띠에 깃든 마음

첫돌을 맞는 어린이에게 색동두루마기나 까치두루마기를 입히고 그우에 돌띠를 둘러주는것은 우리 나라의 오랜 풍속이였다.

돌띠에는 어른옷에서 보게 되는 수, 복, 강녕과 같은 글자와 학, 사슴 등 여러가지 장식무늬들이 수놓아져있다. 여기에는 어린이의 건강을 바라는 뜻이 담겨있었다.

돌띠에는 또한 어린이가 일생토록 먹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뒤면에 수수, 쌀, 콩, 팥 등을 각각 담은 3~9개의 작은 염낭을 달아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돌띠에는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질게 깔려있었다.

* * *

조국의 명승지들을 찾아서 (8)

- 집 삼 -

해외에서 사는 동포들이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즐겨찾는 명승지들가운데는 함경북도 경성군에 있는 집삼도 있다.

세면이 해발높이가 100m안팎의 산들로 둘러막혀있고 동쪽으로 바다가 모래불이 펼쳐져있는 이 지역에는 명소들이 많다.

이곳에 가면 그 모양이 군함처럼 생겼다고 하여 군함바위로 불리우는 이채로운 바위도 볼수 있고 한모금 마시면 아프던 머리가 거뜬해진다는 우물의 청신한 맛도 볼수 있다. 그런가 하면 낚시대를 척 드리우면 잠간사이에 입맛을 돋구는 물고기들을 잡을수 있다는 낚시터에서 독특한 유쾌감을 느낄수 있다.

여기에 펼쳐진 바다가는 말그대로 절경을 이루고있다. 동해의 푸른 물결이 쉬임없이 밀려와 기암들에 부딪쳐 물보라를 일으키는 장쾌한 파도의 모습은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일렁이게 하고있다.

바로 이 지역에 임진조국전쟁시기 왜적을 치기 위해 3명의 의병들이 손을 잡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아담한 집삼동마을까지 있어 사람들의 흥심을 더욱 돋구어주고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해수욕, 낚시질, 천렵 등을 하며 충분한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유모아

약이 있으니 일없어

아들이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해서 말하였다.

《아버지, 돼지내포에는 콜레스테롤이 많기때문에 더 잡수시면 안돼요.》

《괜찮아. 동맥경화에 좋은 약이 있으니까.》

《아버지, 몸이 자꾸 나는데 비게를 그만 잡수세요.》

《일없어. 몸까는데 좋은 차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그렇지 않다가는…》

《넌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그래, 내가 지금 혈압이 높아진걸 모르느냐?》

《괜찮아요! 아버지, 혈압내림약이 있지 않나요!》

* * *

《꼭꼭 숨어라》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주체101(2012)년 7호부터 매호마다 조선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풍습, 유구한 전통을 전하여가는 《민족의 향기》란을 펼치군 하였습니다.

이번 호에는 동포들의 어린 자식들을 위하여 민속놀이의 하나인 숨박곡질놀이를 전하려고 합니다.

어린시절 꽃동리, 새동리로 불리우는 고향마을에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뛰여놀며 즐기던 숨박곡질!

그럼 우리 함께 수십년전의 즐거웠던 그날들을 추억속에 떠올려가며 천진란만하던 동심에 잠겨봅시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

이 동요가 생각나십니까.

평안도지역에서 태여나 어린시절을 보낸분들은 아마 가사도 곡조도 모두 기억하실것입니다.

숨박곡질을 하는 어린이들이 즐겨부르는 이 노래는 곡조는 같지만 가사는 지방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강원도지방에서는 《솔개가 떴다 병아리 숨어라 …》, 충청도지방에서는 《술래야 술래야 개술래야 물어라 …》라고 불렀습니다.

숨은 아이들을 찾아내는 어린이들의 놀이의 하나인 숨박곡질놀이는 전국적으로 숨박곡질이라는 말로도 통하였지만 평안도에서는 숨기놀이, 강원도에서는 숨박질, 함경도에서는 숨기내기, 황해도에서는 숨키박질, 경기도에서는 술래놀이, 술래잡기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숨박곡질놀이는 17~18세기의 력사기록에 이 놀이의 이름과 놀이방법이 소개되여있는것으로 보아 그 연원이 오랜것으로 짐작됩니다.

《술래》라는 말은 《순라》에서 온것인데 봉건사회에서 경비를 서기 위해 순찰한다는 뜻입니다. 이로부터 술래잡이는 오랜 옛날부터 전해오는 민속놀이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놀이는 주로 가을철의 달밝은 저녁에 많이 하였습니다.

놀이에 참가한 아이들이 돌가위보를 하여 진 아이가 《범》이 되거나 한줄로 늘어선 아이들이 차례세기를 하여 마지막에 남은 아이가 《술래》 즉 《범》이 될수 있습니다.

범으로 결정된 아이는 자기의 진(큰 나무나 바위 등 일정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큰소리로 《하나, 둘, 셋…》 하면서 약속한 수자까지 대충 셉니다.

범이 될수록 셈세기를 빨리 하는것은 다른 아이들이 미처 숨지 못하게 하려는데 있었습니다. 셈을 다른 어린이가 세줄수도 있는데 그때에는 아이들이 충분히 숨을수 있도록 일부러 천천히 세기도 합니다.

셈세기를 끝낸 범은 아이들을 찾아나서는데 달이 밝아도 밤그늘이 져서 나무, 바위, 뒤울타리아래에 숨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범이 숨은 아이들을 발견하자마자 그 아이의 이름과 장소를 크게 부르면서 진으로 돌아와 손이나 발을 진에 대면 발견된 아이는 《죽는것》으로 되

갓모때문에 있은 일

조선봉건왕조 영조왕시기의 일이다.

호조판서를 지낸 정홍순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대가 바르고 신의를 귀중히 여겼으며 무슨 일에서나 빈틈이 없었다.

언제인가 호조랑청으로 임명된지 얼마 안되는 한 관리로부터 왕에게 사임신청이 올라왔다. 리유인즉 《신이 젊은 시절의 불찰로 판서어른에게 신의를 잃어 체면상 벼슬에 나갈수 없다.》는것이였다.

영조는 즉시 그 사유를 정홍순에게 물었다.

《그래, 경은 랑관이 왜 사임신청을 냈는지 모르오?》

《갓모때문이라고 아뢰오.》

《갓모라니?》

영조는 몸까지 움쭉하며 되물었다.

《항간에서 비올 때 쓰는 갈대로 엮어 만든 우장을 갓모라 하온데…》

《갓모가 대관절 어쨌단 말이요?》

홍순은 잠시 갑자르다가 자신은 젊어서부터 날씨가 궂을것 같으면 갓모를 둘씩 가지고 다녔는데 어느날 왕의 행차를 구경나갔다가 비를 만난 젊은 선비 하나에게 갓모를 빌려주었다고 아뢰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집주소도 대주었지만 그 선비가 갓모를 돌려주지 않아 하는수없이 자신이 그 선비의 집을 찾아가 갓모를 되찾아왔다고 하였다.

영조는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나서 물었다.

《그럼 그 선비가 랑관이란 말이요?》

《그렇사옵니다.》

《그게 도대체 언제적 일이요?》

《스무해전 일이옵니다.》

《스무해전이라 하…

스무해전 일을 잊지 않고있으니 경의 기억력도 무던하오. 그래 그 일때문에 랑관이 사임신청을 냈단 말이요?》

《실은 신이 사임신청을 내게 하였사옵니다.》

《뭐라고? 갓모때문에 아까운 인재를 버린단 말이요? 그까짓 일이 뭐라고, 경의 도량으로 그만한 일도 감당 못한다니 참 유감이요.》

영조는 저으기 기분이 상한듯 이마살을 찌프렸다.

《신의 도량이 넓지 못한것은 사실이오나 랑관이 만약 신을 첫눈에 알아보았던들 사임신청까지 내게 할거야 있겠사옵니까. 스무해전 일이 비록 별찮은것이기는 하오나 만약 신의가 없는 자신을 깊이 자책하였더라면 신의 얼굴을 잊었을리야 있겠사옵니까.

그런데 신이 말해서야 겨우 기억하는 정도였으니 자신을 깊이 반성하지 않았다는것은 알만한 일이옵니다. 갓모 하나도 제때에 돌려주지 못하는 위인이 나라의 재물을 내고들이는 호조의 일을 어찌 맡아볼수 있겠사옵니까. 만약 이 일로 하여 신의 도량이 좁다고 생각하시면 신의 벼슬을 거두어주시기 바라옵니다.》

홍순의 말에 영조는 더 할 말이 없었다. 결국 랑관은 교체되였다.

* * *

고 발견된 아이가 범보다 먼저 진에 닿으면 《죽지 않는것》으로 됩니다.

범이 진으로 돌아오지 않고 발견한 아이를 쫓아가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범은 한 아이만 찾는것이 아니라 숨은 아이들을 다 찾아내야 합니다.

범한테 잡힌 아이들과 잡히지 않고 살아난 아이들은 진주위에 모여서서 노래를 부르면서 숨은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손벽을 치면서 숨어있는 아이들을 응원하면 범은 초조하여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골목, 저 골목에 숨은 아이들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 놀이에서 숨은 아이가 범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빨리 달려와서 진을 짚고 《찜!》이라고 소리치면 그 아이는 산것으로 됩니다.

숨었던 아이들이 모두 나오거나 찾게 되면 놀이는 한판이 끝난것으로 되는데 놀이를 계속하려면 죽은 아이들끼리 돌가위보를 하여 범을 정합니다.

어린이들은 이처럼 찾고 숨고 응원해주는 재미로 하여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소리치면서 달이 기울어지는 밤늦게까지 놀이를 합니다.

보다싶이 숨박곡질놀이는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는 놀이로서 주위환경에 대한 세밀한 관찰력과 정황판단력, 날랜 몸동작을 키워주는 좋은 민속놀이입니다.

《꼭꼭 숨어라》, 이 동요를 부르며 몸과 마음을 키워가던 여러분의 유년시절은 다시 오지 않지만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은 언제나 젊음을 가져다줄것입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오늘 겨레는 북과 남에 조성된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시대적흐름을 계속 힘차게 이어나갈 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이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온 겨레의 일치한 의사를 반영한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에 기초하여 풀어나가는것은 국토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조선민족인것만큼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은 그 직접적당사자인 우리 민족이 뜻과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칠 때 성과적으로 해결되게 된다.

그 누구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대신할수 없으며 더우기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겨레의 지향과 의사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서는 언제 가도 민족의 숙원을 성취할수 없다.

온 민족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을 불문하고 서로가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을 찾고 철저히 실현해나갈수록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다는것은 지나온 력사가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선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내외분렬주의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후대들에게 기어이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려는 일념으로 북과 남이 공동으로 합의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이 땅에서 동족상쟁의 참화를 가시고 조국통일운동을 드높은 열기로 고조시켰다.

또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맥박치는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북남관계를 새롭게 개선하고 우리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을뿐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진보적인류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온 민족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쳐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철저히 확립해나갈 때 조국통일의 그날은 더욱더 앞당겨진다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시이다.

비록 민족의 통일의지에 역행한 《자한당》의 반통일적망동으로 모처럼 마련된 소중한 합의들이 성사되지 못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불신과 대결, 긴장이 조성되기는 하였지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애국애족적인 대용단에 의하여 북남관계는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였다.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으로 북남사이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것을 확약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불신과 대결의 최극단에 놓여있던 북남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되고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8(2019)년 4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남조선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것은 자신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고 다시한번 천명하시였다.

전체 조선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몸 다 바쳐나갈 때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는 힘차게 열려질것이며 8천만겨레가 함께 모여살 그날은 더욱 더 앞당겨질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용기백배하여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진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철

고조되는 적폐청산운동

최근 남조선 각계층이 또다시 초불을 들었다.

그들은 《자유한국당》을 반대하는 적폐청산운동에 떨쳐나선것이다.

서울에서 민중공동행동, 반전평화국민행동을 비롯한 진보운동단체들의 주최밑에 《자유한국당》의 죄행을 폭로하는 초불시민연설회가 열린데 이어 《자유한국당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초불대회》가 개최되였으며 《자유한국당》해체를 위한 범국민초불행진도 진행되고있다.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서울은 물론 광주와 부산, 대구를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련이어 울려나왔다.

집회와 시위행진들에는 10대의 초등학생으로부터 시작하여 대학생, 보수적경향이 강하다고 하는 70대의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각계층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고조되는 적폐청산운동은 보수부활에 환장한 《자유한국당》의 《국회》란동이 극도에 이르고있는 가운데 반역당해산을 요구하는 기운이 고조되여 여론의 주목을 끌고있다.

지난 4월말 남조선당국이 운영하는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한 주민이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을 철저히 조사하여 정당해산청구를 해야 한다. 정당해산전례가 있는만큼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주기 바란다.》

보수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와 증오를 그대로 대변한 그의 청원은 남조선 각계의 커다란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그의 청원을 계기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저저마다 게시판에 《자유한국당》을 단죄규탄하며 당장 해체할것을 요구하는 글들을 올렸다. 청원참가자수는 지난 5월 중순 현재 무려 180여만명으로서 게시판개설후 최고수치에 이르렀다.

《자유한국당》이 인민들로부터 증오와 버림을 받는것은 필연적이다.

알려진것처럼 《자유한국당》것들은 초불민심에 의해 들어선 현 《정권》을 무작정 깎아내리면서 어떻게 하나 재집권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은 대표로 선거되기 전부터 박근혜의 그 무슨 《공》에 대해 지껄여대며 《수감중에 있기때문에 걱정한다.》고 줴쳐댔는가 하면 박근혜《정부》가 한 일을 모두 국정롱단, 적폐로 보는것은 잘못된것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국민통합이 필요한 때인것만큼 더이상 탄핵을 론하지 말자며 박근혜잔당으로서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놓았다.

한편으로는 현 《정권》을 《좌파독재정권》으로 매도하며 당의 운영방향을 《좌파저지투쟁》으로 정한다, 《경제실정백서작성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분주탕을 피우면서 민심을 끌어당기려고 악을 써댔다.

박근혜역도의 탄핵이후에도 《변화》니, 《혁신》이니 하는 간판을 내걸고 민중을 기만우롱하며 권력복귀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였는가 하면 《색갈론》을 내들고 보수통합과 재집권야망실현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이자들이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역도를 비호두둔하며 《탄핵무효》와 《박근혜석방》을 로골적으로 떠들어대고있는 사실, 광주인민봉기와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을 모독하는 망언을 련이어 늘어놓아 사람들을 경악케 한 사실, 《국회》를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만들고 거리로 뛰쳐나가 매일같이 소동을 피우고있는 사실도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력사의 반동들인 《자유한국당》것들의 란동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남조선인민들은 보수세력의 발악적책동을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 초불투쟁성과들이 말살되고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자신들의 지향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자유한국당》것들이 시대의 요구와 민심을 거역하며 매국과 반역에 기승을 부릴수록 인민들의 분노는 더욱 세차게 터져오르고있다.

《자유한국당》과 같이 력사의 퇴물들이 날로 높아가는 적폐청산의 기운을 막아보겠다고 발악하는것은 남녘민심의 더욱 더 큰 분노만을 자아낼뿐이다.

시대와 력사의 흐름을 거스르며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민심에 거역해나서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세력이 갈 곳은 력사의 지옥밖에 없다.

본사기자

민족적의분을 자아내는 독도강탈책동

최근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의 책동이 보다 치졸하게 벌어지고있다.

이미 보도되였지만 얼마전 일본은 문부과학성을 내세워 《독도령유권주장》이 담긴 소학교용사회과목교과서들의 발행을 강행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1905년부터 《다께시마》라는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된 저들의 《고유령토》인 독도가 현재 《불법점거》중에 있다는것이다.

정말 소가 웃다 꾸레미터질 일이 아닐수 없다.

일본의 파렴치한 이번 망동은 조선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침해행위이며 력사적정의와 진실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다.

지금 온 겨레는 일본의 독도강탈야망에 분격을 금치 못해하고있으며 그것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아직도 빼젓이 살아있는 일본의 군국주의망령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 《아이들까지 전범자로 만들려는 행위》, 《반성과 사죄없는 령토야욕》, 《무분별한 력사외곡은 고립을 자초할뿐》 등으로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독도는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와 더불어 떼여놓을수 없고 누구도 넘겨다볼수 없는 조선민족의 신성한 령토이다. 그것은 력사적사실과 지리적근거를 통해 고증해명되고 또 국제적으로도 확인되였다.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국토에 편입시킨것도, 국제법적요구에 맞게 독도령유권을 재확인하고 내외에 제일먼저 선포한것도 조선민족이다. 독도는 비록 자그마한 섬이지만 조선민족은 그것을 자기의 살점처럼 귀중히 여기며 지켜왔다.

일본에서도 이것을 립증하는 자료들이 이미 나왔으며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있다.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령토강탈야망이 골수에 들어찬자들의 황당무계한 궤변에 불과한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도적고양이처럼 슬그머니 조작한 《시마네현고시》를 내흔들며 독도가 저들의 령토라고 생떼를 쓰다못해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까지 령토팽창의식을 주입시키는 일본이야말로 후안무치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는 날강도들이 아닐수 없다.

진실만을 알아야 할 순진한 아이들에게 외곡된 력사관을 주입시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려는것이 일본의 속된 흉심이다.

그 실현의 첫번째 대상이 《독도령유권》주장이며 이것은 조선반도재침의 전주곡인것이다. 그로 하여 일본은 그렇듯 목갈리게 《독도령유권》을 줴쳐대며 외곡된 교과서발행놀음도 벌리고있는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끈질긴 령토강탈책동으로 하여 지금 일본에서는 독도를 《빼앗긴 땅》으로 여기며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고아대는자들이 광기를 부리며 날치고있다.

일본은 이렇듯 오만하게 놀아대고있다.

하지만 일본은 오산하고있다. 제아무리 일본이 피비린 과거사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력사외곡과 령토강탈책동에 광분하여도 얻을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세계의 비난과 조소만을 덧쌓게 될것이다.

지금 파렴치한 령토강탈책동에 광분하는 일본에 대한 온 겨레의 분노와 적개심은 활화산처럼 끓어번지고있다.

일본은 파렴치하고 저속한 정책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령토강탈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온갖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일본의 래일을 위해서도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류경김치공장

조선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민족음식의 하나인 김치를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류경김치공장은 평양시 대성구역에 위치하고있습니다.

주체105(2016)년 6월에 세워진 공장에서는 통배추김치, 석박김치, 백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어린이영양김치, 콩나물물김치, 오이소박이김치를 비롯한 여러가지 김치를 생산하고있습니다.

생산현장이 무균화, 무진화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매 가정들에서 담그어먹는것보다 더 맛있고 시원하며 쩡한 맛을 내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모란봉 을밀대의 여름 본사기자 임정국

예로부터 이름난 명승지의 하나인 평양의 모란봉에 신록이 짙어간다.
오랜 력사와 문화를 전하는 고적으로 손꼽히는 을밀대는 한여름의 열기를 식히는데 참으로 안성맞춤이다.
을밀대 루정에 선 사람들은 누구나 옛날 하늘에서 이곳에 자주 내려와 놀았다는 전설속의 을밀선인이 된듯 한 심정을 체험해볼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1980159
http://www.korean-books.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